



제1회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설교페스티벌이 7일 오전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본당에서 열려 신학도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샌안토니오제일장로교회”

PCUSA탈퇴 결의...ECO가입 추진

텍사스에서 교인 수 약 2,200명 규모의 대형교회가 신학적 견해 차이로 교단 탈퇴를 결정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샌안토니오제일장로교회 교인들은 지난 1일 실시한 투표에서 1,072명 중 87.3%가 미국장로교(PCUSA)를 탈퇴하는 데 찬성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PCUSA보다 더 보수적 교단인 복음주의연합장로교회(ECO)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은 85.6%였다.

제일장로교회 관계자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회 중직들이 ECO에 대해 알아 본 결과, PCUSA보다 더 신학적으로 우리와 맞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우리와 동역했던 텍사스의 많은 교회들도 최근 ECO에 가입했다”며 “그 가운데는 휴스턴 은혜장로교회, 달라스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 아마릴로 제일장로교회 등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제일장로교회 서기인 N. A. 스투어트 3세는 지난달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교단은 과거

와 달라졌다. 성경적·신앙 고백적인 정신에서 벗어났다. 약 1년간의 짧지 않은 시간, 기도·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제일장로교회 중직들은 교단 탈퇴 및 ECO 가입을 위한 교인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ECO에 대해 “신학적 견해 차이로 우려를 사고 회원 교회들의 수가 감소하는 PCUSA와 반대로, 활기차게 성장하는 장로교단”이라며 “교육·전도·선교에 있어서 우리 교회의 전통적인 비전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제일장로교회의 지교회는 현재 PCUSA 미션노회에 소속돼 있다. 미션노회의 노회장인 루벤 P. 아르멘다리즈 협력장로는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는 교회들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제일장로교회의 교인 대다수가 교단 탈퇴 및 ECO 가입을 결의했으나, 실제로 이를 이행하기까지는 교회법상 효력여부 등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강혜진 기자

건전한 설교문화 정착 위한

제1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 개최

차세대 영적 지도자로서 장차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에서 헌신할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건전한 설교문화를 정착시키고 말씀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제1회 남가주신학대학교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7일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본당에서 열렸다.

이 페스티벌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이하 미주장신, 총장이상명 박사)가 주관하고 그 외 국제개혁대학교, 그리이스미션대학교, 미성대학교, 베데스다대학교, 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윌드미션대학교 등 6개의 한인 신학교가 공동 주최했다.

참가자는 각 대학 대표 1명, 총 7명의 신학생들이 참가했다.

이 페스티벌은 1부는 예배, 2부는 설교페스티벌을 통한 말씀 나눔과 축제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예배에서 민종기 목사(총현 선교교회 담임)는 ‘하나님의 은밀한 지혜’ 주제의 설교를 통해 “시대를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은밀한 지혜다. 그리고 그것은 설교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 성령님의 인도로 은밀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좋은 설교를 통해 세상을 변



대상 수상자 박노현(윌드미션대학교)이 이 대학 총장 송정명 목사로부터 상금 3천불과 상장을 수여받으며 기뻐하고 있다.

화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 연합 설교 페스티벌이 건전한 설교문화 정착의 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 페스티벌을 주관한 미주장신 총장 이상명 박사는 “이 페스티벌 준비를 통해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또한 말없이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주신 지역 교계 여러분들께도 감사한다. 이를 계기로 이 지역에 건전한 설교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심사기준은 첫째 전달력과 열정, 둘째 정확한 본문주해, 셋째 설교구성(시간엄수(제한 시간 15분)포함), 넷째 삶과 교회 현장의 적용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 25점 만점 기준으로 심사됐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별로 1명의 교수 총 7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해당 대학 참가자에 대해서는 심사에서 제외됐다. 주최 측은 이러한 조치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각 참가자들은 성경본문 발췌본서 3장 10-16절을 기준으로 제한 시간 15분 동안 각자 설교했다.

전체적인 심사평은 각 참여자들의 진정성 있는 설교 준비를 높이 평가했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박노현(윌드미션대학교)-상금 3천불과 상장, 설교상: 황원일(베데스다대학교)-상금 2천불과 상장, 주해상: 김경식(국제대학교)-상금 2천불과 상장, 커뮤니케이션상: 김영일(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상금 천불과 상장, 장려상: 김영임(그리이스미션대학교), 서정일(에반겔리아복음대학교), 홍락기(미성대학교)-상금 3백불과 상장. 이영인 기자

“감사한인교회 창립 32주년 감사예배”

임직감사예배도 드려...30명의 직분자 새로 세워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가 창립 32주년을 맞이해 8일 2명의 장로, 9명의 안수집사, 19명의 권사를 세웠다.

이 교회는 김영길 목사가 1983년 LA순복음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해 현재는 미국하나님의성회(AG) 한국총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성장했다.

현재 19개 국에 44곳 선교지를 후원하고 있으며 남가주 지역에도 코로나감사한인교회, 빅토밸리감사한인교회, 어바인감사한인교회, 다이아몬드감사한인교회 등 형제

교회를 개척해 섬겨오고 있다.

임직식에서는 서남부지방회 지용웅 회장, 김선옥 부회장, 강신승 총무, 심상은 증경회장 등이 예배 순서와 안수예식을 맡았고 특별히 한국총회의 임창수 총무도 축사를 전하는 등 교단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러나 설교는 이 교단 소속이 아닌 진유철 목사가 맡았다. 나성순복음교회 담임인 진 목사는 현재 순복음복미총회 부총회장을 맡고 있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GOOD YEAR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턴과 12가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3-7-21 재능캠프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계발·토크스, 일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by.moon65@gmail.com
 www.MyIvydream.com

2015년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후원의 밤 행사에 초대합니다

올해로 개교 38주년을 맞이한 본교는 이번 후원의 밤 행사를 위해 미주 사회의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Park Trio를 초청하였습니다. 2014년 미 대통령 표창장을 수상한 Park Trio의 피아노와 바이올린과 첼로로 구성된 환상의 앙상블이 빛나는 섬세하면서 다이나믹한 선율은 본교 후원의 밤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 아울러 본교를 이제껏 후원하신 분들이나 기관들 가운데 몇몇 분들과 교회/기관을 선정하여 감사패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세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를 배출할 든든한 신학교육 센터로 본교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배출하는 영적 사관학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오셔서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셔서 본교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한인사회와 교회의 꿈나무로 커갈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 주시고 따뜻한 후원을 해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일시 2015년 11월 16일(월), 오후 6:30
장소 가나안교회
특별순서 박트리오 (Park Trio) 공연, 후원자 감사패 전달식

“젊은 활력과 함께 언제나 따뜻하고 감성적인 앙상블로 청중들의 사랑을 받는 Park Trio” (피아니스트 서혜경)
 “우수한 음악성, 기교, 그리고 보기 드문 단련력과 각 개인이 뽐내는데 무대 위의 흥은 국제적 무대를 석권할만한 탁월함이 느껴진다.” (Peter Marsh, USC Chamber Music Director)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출신의 미주 한인 사회를 빛내는 Park Trio, 바이올리니스트 박윤재, 첼리스트 박수정, 피아니스트 박순규

오시는 길
가나안교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T.(562) 866-0980

1-20 발행 정회원 ats 준회원
www.ptsa.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Fax. (562) 926-1025
 www.ptsa.edu / office@ptsa.edu

총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미주대한신학대학 후원의 밤”

미주대한신학대학(재단 이사장 및 초대 총장 류당열 박사) 제3회 후원의 밤 행사가 14일 저녁 LA한인타운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김영배 목사(남가주대신노회 직전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1부예배는 박효우 목사(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직전회장) 기도, 박상희 원로목사 설교, 박종대 목사 특별찬양(트럼펫 연주), 이현주 선교사와 열리문 찬양 울동팀의 몸찬양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박상희 목사는 ‘주님의 명령’(요 15:16-17) 주제의 말씀 선포를 통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주

님과 내가 한 몸이 될 때가 진짜 믿음의 때다”며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선택한 것이다. 이것이 은혜다. 그러므로 현재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1부 마지막 순서로는 특별히 서영석 장로의 생일을 축하하는 케익 커팅의 시간이 마련됐다. 한인 신학도들을 위한 서장로의 한결같은 후원에 보답하는 의미라고 류 이사장은 설명했다.

류당열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제 2부 후원의 밤 순서에서는 후원 약정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과 이미



제3회 미주대한신학대학 후원의 밤에 참석한 후원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후원을 약정한 후원자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 재단의 부이사장 장숙영 박사(명예총장)와 장도영 박사(포에버21 회장), 스칼렛 엠(전 LA한인회장), 황규만(시온

마켓 사장) 등 이 지역 한인들의 후원과 손수웅 회장(국가조찬기도회 LA지회) 등의 후원은 눈에 띄었다. 대한신학대학은 신학교육의 발전과 특별히 한인 2세들의 신학교

육을 위해 꾸준한 후원을 기대하고 있다. 문의는 대한신학대학으로 하면 된다. 전화: 323-731-9819, 주소: 2911 W.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57 이영인 기자



임직감사예배를 마친 후 임직자들과 임직예식을 맡았던 목회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용철 목사(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가 부흥집회를 인도하고 있다.

“감사한인교회 창립32주년 및 임직 감사예배”

[1면으로부터 계속] 한국총회와 순복음북미총회, 두 교단은 1974년 순복음세계선교회 미주연합회를 모태로 1982년 2월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으나 1987년 7월 분리되었다.

1996년 1월 하나님의성회 순복음 한국총회로 대통합을 이룬 후, 1998년 4월 북미총회가 다시 독립하게 되고, 하나님의성회 순복음 한국총회는 2000년 4월 원래 이름인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로 개명해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날은 소속 교단과 상관없이 시종일관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됐다.

진유철 목사는 ‘한 사람을 찾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임직자들을 향해 “문제를 말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이 찾으신은 그 한 사람이 되겠다

는 각오를 다지라”고 강조했다. 축사를 전한 임창수 총무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 포도원을 지키는 나뭇처럼 교회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다.

한편, 감사한인교회에서는 임직자들에게 임직패가 아닌 임직증서를 전달하고 식사 대접도 간소화하는 등 직분자들의 섬김의 자세를 배어나게 하는 겸손이 돋보였다.

김준형 기자

“동문교회 부흥집회” 개최

동문교회가 조용철 목사(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 초청 부흥집회를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개최했다.

둘째 날 부흥회에서 조용철 목사는 ‘승리의 밤’(사사기 7: 19-23)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조목사는 “기드온의 300용사를 뽑는 이야기는 교회의 지도력에 관한 말씀이다. 지난 6년간 동문교회의 문제는 지도력의 부재”라고 말문을 열어 “기드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다. 어려울 때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목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영적 전쟁은 신앙 생활

의 승리로 이어진다”면서 “교회는 주님의 재림 때까지 영적 전투를 감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해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신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작은 무리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항상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는 자를 쓰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단 한 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고, 불평하지 않고 순종할 때 기적이 따른다”며 “거룩한 승리의 역사를 쓰는 동문교회가 되라”고 했다.

이인규 기자



예장 합동총회 미주서부노회 제2회 정기노회가 노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일 한미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예장합동 미주서부노회 ‘제2회 정기노회’ 개최

본국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박무용 목사)에 속한 미

주 서부노회가 제2회 정기노회를 3일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윤영 목

사)에서 개최했다. 이날 노회에는 약 60여 명의 노회원들이 참석했으며 각종 회무를 처리했고 박세훈, 양종석, 박정수 목사가 신규 가입했다.

장애인 단체 연합 “제29회 사랑의 축제”

남가주지역 장애인 섬김 단체들이 연합하여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랑의 축제’를 개최한다. 이 축제는 올해 29번째로 매년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는 26개 교회와 12개 단체가 함께 행사를 연다. 주제는 ‘SMILE-스마일’(스바냐3:17)로 댄스파티 형식으로 열린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12세 이상의 발달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참가비는 1인당 5달러이며 자원봉사자는 무료다.

*일시: 11월 21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남가주사랑의교회 *주소: 1111 Brookhurst Ave, Anaheim, CA 92801 *문의: 657-400-9570(사랑의 축제 조직위원회)

GMU 초청의 밤(Open House)



초청의 밤(Open House)

- 날짜: 11월 24일(화) 7:00pm
- 장소: GMU 예배실 (은혜한인교회 Miracle center)
- 행사내용:
 - 학교탐방 (Camus tour)
 - Financial Aid 소개
 - 사역 네트워킹
 - 각 전공소개
 - * 특별상품추첨 (8" 삼성 태블릿 및 다수)
 - * 참여자는 입학금 면제
 - * 누구든지 관심있는 분 환영

온라인 과정:수시모집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English Track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LA Extension Class : 주님의 영광교회내

신교학박사과정 (DMiss, 유학생 I-20 발급)

- 2015 하반기~2016상반기 집중강의
- 과목1: 성령신학의 이슈 (11/23~12/23, 매주월요일 5주)
- 과목2: 멘토링과 코칭 (2016년 1/11~15, 월~금)
- 과목3: 고급성경해석학 (2016년 1/18~22, 월~금)

석사과정

- 목회학 석사 (M.Div)
-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 신교학 석사 (MA ICS)

학사과정

신학사 (BA)

- 우수한 교수진
-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과 캠퍼스
- 저렴한 교육비
-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 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
-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 미 군목 장교 지원
- GMU 학교 장학금 수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는 학교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525-0088, Email: admissions@gm.edu, www.gm.edu

가을밤 물들이는 주님 향한 일편단심

목사장로 부부찬양단 29일 8회 정기연주회

“확박한 이민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한인들에게 작은 안식과 위로를 선사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많은 한인들이 연주회장엔 찾아오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준비한 저희 노래를 들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습니다.”



단장 정윤두 목사

감사 절기를 맞아 목사장로 부부찬양단(단장 정윤두 목사·지휘 전중재 교수)이 오는 29일(주일) 오후 7시 LA 한인타운 내 월셔연합감리교회(4350 Wilshire Blvd., LA)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하나님이 중요한 합창음악 속에서 생활의 활력소를 찾는 남녀 40여 명으로 구성된 찬양단은 음악회를 보듬어 왔고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늘 보좌로 올려드리기 위해 연습에 열중이다. 전중재 대구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의 지휘와 헬렌 박씨의 반주로 화음과 음정을 담금질하며 막바지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교회의 리더를 맡아 이민목회 현장에서 영혼들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는 이들은 이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이 오는 29일 오후 7시 월셔연합감리교회에서 제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3차례의 스테이지를 통해 절제와 인고의 세월로 빚어낸 숙성된 음악을 선사한다.

찬양단은 우선 '온 세상 위하여' '감사의 기도' '거룩한 주' 등의 성가합창을 연주, 청중을 매혹시킨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목마른 사슴' '내 주의 강가로' '아주 먼 옛날'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등 전 교수가 손수 편곡한 CCM 모음곡을 열창, 주님 향한 일편단심으로 떠남을 아쉬워 하는 가을의 밤하늘을 물들이는다. 곡중 솔로는 이순환 목사 등이 맡는다. 마지막 무대의 레퍼터리는 '너로 인하여 주께

감사해' '우리는 주의 지체' '주는 반석' 등의 성가합창들이다.

콘서트에서는 또 부부 단원인 박재웅 목사, 박경숙 사모가 '주기도' '하늘의 주' 등을 임경해씨의 올겐 반주로 들려준다.

이밖에 서문옥 목사가 지휘하고 송지영씨가 반주하는 조이플남성선교합창단이 특별출연, 다채로움을 더한다.

단장 정윤두 목사는 "지난 1년간 연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건강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 단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각오

로 열심히 연습했다"며 이번 무료 음악회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했다.

2006년 창단된 목사장로 부부찬양단은 그동안 목회자 위로의 밤, 이민문학 심포지엄, 광복절 찬양제 등에 초청받아 연주했으며, 목회자 자녀 장학기금 모금 연주회 등 의욕적인 활동을 펼쳤다. 매주 월요일 오후 7-9시 나성영락교회 소망관에서 연습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신실한 이들의 가입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818-468-8672 (총무 강평근 목사) 김장섭 전문위원

주해홍 목사 초청 “통큰통독” 말씀 잔치 연다

16~18일 OC, 내년 1~5월 LA

미주두란노서원은 '통큰통독'의 저자인 주해홍 목사(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를 강사로 초청,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소중한 말씀잔치를 펼친다.

첫 행사는 16(월)-18(수) 사흘간 오전 10시-오후 9시 30분까지 에스라아카데미(1661 N. Raymond Ave. #265, Anaheim)에서 마라톤 코스로 계속되는 '성경일독학교 집중과정'. 점심과 저녁 식사가 제공되는 이 코스는 송이꽃 같은 성경을 사랑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숙박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저렴한 비용의 인근 모텔을 안내해 준다. 등록비는 120달러.

한 해를 시작하며 새해 결심도 세우는 내년 초에는 정규 과정을 개설한다. 정식 명칭은 '2016 통큰통독 성경일독학교 LA 5기'. 16주간 동안 계속되는 이 코스는 화요일 오전반(오전 10시-오후 12시 30분)과 화요일 저녁반(오후 7시-9시 30분)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장소는 미주두란노서원 세미나실(616 S. Westmoreland Ave., LA)이다. 등록비는 100달러이며, 선착순 50명이 참가할 수 있다.



지난 9월 열린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개원예배에서 주해홍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연세대 졸업 후 보스턴대학교 경영학 석사와 호프대학교 목회학 석사를 받은 주목사는 주정부 감사관실에서 25년간 근무하고 은퇴한 세무 베테랑. ANC온누리교회 사역목사(성경대학)로 섬기면서 미주장로회신학대학원 교수로 사역중이다. 장학사업과 구제금융 사역에도 힘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러시아와 한국을 방문해 성경통독 바람을 일으켰다.

여러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그의 책 '통큰통독'은 깊이 있는 내용으로 한국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성경

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주목사는 "지난 9월에 사역원 개원예배를 열고 신자들의 가슴에 성경 사랑의 불이 붙도록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종말론적 구속사, 하나님의 나라, 구별된 삶이라는 3가지 관점을 갖고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방법론적으로는 줄거리 따라 읽기와 메시지 잡고 읽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213-235-1068 두란노 세미나팀

오하이오주 주민들 대마초합법화 거부

오하이오 주민들은 지난 3일 대마초를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반대 64%, 찬성 36%으로 거부했다.

전체 미국인 60%가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는 이른바 '대세' 속에서 오하이오 주민들이 거부한 까닭은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오하이오주 대마초의 오락용 사용 합법화 내용에 대마초 재배 '독점'을 허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의안에는 오하이오 주헌법에 10개의 부지에서만 대마초를 재배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인지 시민들의 권리나 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식이 오하이오 주민들에게 팽배했다는 분석이다.

대마초 오락용 사용 합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번 오하이오 주민투표는 대마초 오락용 사용 합법화 이면에 '돈'을 벌려는 숨은 동기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방증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재 연방법은 대마초 재배, 배분, 보유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

천천히 다 돌려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마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Earn your Associate degree in just ... ONE YEAR!

LAORT COLLEGE
WE PUT EDUCATION TO WORK

- Accounting
- Business Management
- Administrative Assistant
- Phlebotomy
- Medical & Clinical Assistant
- Medical Office Management
- Pharmacy Technology Administration
- Digital Media
- Computer Aided Drafting & Design (CADD)
-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ESL)

한국어 상담 그레이스(Grace)
직통: T(213)703-6863
Office: T(323)966-5444

WE OFFER:

- Financial Aid and Scholarships are available (for those who qualify)
- Job and Career Placement Assistance
- Day and Evening Classes
- Transportation Assistance
- Student Visa Assistance
- Accredited by ACCET

LAORT.EDU
800 NON-PROFIT SCHOOLS WORLDWIDE
1.800.998.2678

MID-WILSHIRE CAMPUS
6435 WILSHIRE BOULEVARD
LOS ANGELES, CA 90048

SAN FERNANDO VALLEY CAMPUS
14519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조이피플교회가 양택호 일본선교사 홈커밍 환영예배를 드린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조이피플교회...양택호(원경) 일본선교사 부부 환영 예배 가져

양택호 일본선교사 홈커밍 환영 예배가 8일 오전 조이피플교회(이태종, 김성지 목사)에서 열렸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기도에 힘쓰는 교회'인 조이피플교회는 이날 교회가 후원하는 양택호 선교사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리며 일본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이날 홈커밍 예배는 이태종 목사가 사회를 맡고 양 선교사가 '참예하는 복음(요4:35-38)'이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성지 목사가 감사인사와 광고를, 그리고 정영삼 목사(태바선교회 대표)가 축도했다. 한편, 이 교회는 오지 선교지의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보내기 위해 한 가정당 2개의 선물을 모으고 있다. 교회 주소는 4321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이며 문의 전화는 714-494-3009이다. 문소현 기자



과거 아이비유학원이 실시한 재능캠프 참가자들.

“누구에게나 있는 숨겨진 재능, 발견하고 놀라게 돼”

아이비유학원 남가주와 한국에서 재능캠프

아이비유학원이 초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잠재능력을 개발하는 재능캠프를 LA, 알바인, 토렌스, 앤저에 위치한 수양관과 한국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 캠프는 참가자의 언어, 시각, 논리, 창의, 신체, 정서적 지능 지수를 측정하고 그 지능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두뇌의 힘을 길러 실생활에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셸비 권 원장은 “21일간 투자해서 성실하게 참여하다 보면 프로그램을 마칠 즈음에는 자신의 천재성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고 설명했다. 10여 년간 대학 입시 및 유학 분야에서 일해 온 권 원장은 “많은 학생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 과목을 선택하고 대학에서 전과를 한다. 또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들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개인의 재능을 찾고 개발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문의는 전화 949-329-8222, 이메일 shelby.moon65@gmail.com, 웹사이트 www.MyivyDream.com다.

한국 엘림 장애인선교회 LA선교집회

30여 년을 장애인 사역에 헌신한 한국 엘림 장애인선교회 사무총장 고창수 목사의 생생한 간증집회가 열린다. 문의는 전화 213-736-6625. *일시: 11월 12일(목) 오후 7시 30분/장소: LA사랑의띠선교교회 *일시: 15일(주일) 오전 11시/장소: 새생명선교교회(글렌데일) *일시: 22일(주일) 오전 11시/장소: 갈보리선교교회(가든그로브)

JAMA다민족연합기도대회

미국의 부흥과 회복을 위한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열린다.

- *일시: 11월 29일(주일)
*시간: 오후 4시 30분-8시 30분
*장소: 애나하임 컨벤션센터 (디즈니랜드 옆)
*주소: 800 W Katella Ave., Anaheim, CA 92802
*문의: 323-933-4055 714-336-4378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2015후원의 밤

올해로 개교 38주년을 맞이한 미주장로는 다음 세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현장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 배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앞으로도 든든한 신학교육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인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기대하며 2015후원의 밤 행사를 마련한다.

- *일시: 11월 16일(월)
*시간: 오후 6시 30분
*장소: 가나안교회
*주소: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문의: 562-926-1023
*특별순서: 박트리오 공연

GMU초청의 밤

세계 선교비전을 이루는 GMU(그레이스미션대학교) 초청의 밤(오픈 하우스)이 열린다.

- *일시: 11월 24일(화)
*시간: 오후 7시
*장소: GMU 예배실 (은혜한인교회 미래센터)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문의: 714-525-0088
*이메일: admissions@gm.edu

크리스천헤럴드 창립 38주년 감사예배 및 TV 개국 콘서트

- *일시: 11월 14일(토)
*시간: 오후 5시 30분
*장소: 은혜한인교회 대성전
*주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입장료: 무료

예배와 선교, 이민가정 회복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되고파

〈인터뷰〉얼바인아름다운교회 이동준 목사



얼바인아름다운교회 이동준 담임목사

김치찌개 얻어 먹으려고 교회 가던 유학생, 부흥사 故 이천석 목사로부터 “넌 주의 종이다”란 기도를 받고도 코웃음 치고, 소위 노는 일이라면 절대 빠지지 않았던 날라리 교인 이동준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휴스턴으로 유학과 학업을 마치고 LA에 정착, 여러 사업을 하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살았다. 그러나 일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음을 체험하게 되면서 결국 주님 손에 붙들렸다. 신학을 공부한 후, 1999년 놀워에 남가주부흥교회를 개척했고 내친 김에 공부도 더 해서 ITS에서 조직신학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휴스턴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세상 것 다 소용없어요. 다 배설물처럼 버렸습시다. 목회자는 목회를 잘해야죠. 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동준 목사가 개척한 이 교회는 2013년 12월 얼바인으로 이전하며 이름을 얼바인아름다운교회로 바꾸었다. 15년간 한 교회에서 목회했지만, 자신의 목회에 대한 평가는 ‘아직 멀었다’다. 그러나 지금도 매주 놀워에서 수십 명 성도가 얼바인까지 1시간씩 차를 타고 내려와, 아예 놀워와 얼바인을 다니는 교회 버스까지 장만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교회 건축만 3번을 했고 얼바인에 새로 건축한 교회에서는 이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섬기기 위해 애프터스쿨을 운영하고 기독교대안 학교도 곧 시작한다. 이 정도면 ‘아직 한참 멀었다’는 자평은 좀 지나쳐 보이기까지 한다. 이동준 목사는 아름다운교회의 사명을 예배, 제자양육, 복음화, 자녀 교육이라고 요약했다. 그는 “예

배의 성공이 곧 인생의 성공이고 나라의 희망”이라면서 “늘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 가치를 둔다”고 했다. 더불어 성도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과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지역사회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 사명이다. 이 교회는 매주 노방전도를 하고 있으며 공산권 국가 선교에도 남다른 열심을 내고 있다. 또 얼바인 지역은 특성상 자녀 교육을 위해 이민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민가정 내 부모·자녀 간 장벽을 허물고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을 제시하는 일에도 주안점을 두고 사역한다. 방춘식, 이경운, 이종섭, 이용규, 손원목 등 5명의 장로들도 이런 비전에 하나되어 교회를 섬기며 동역하고 있다. 이 목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한 알의 밀알 같은 목회자와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라며 인터뷰를 맺었다. 교회 주소: 17702 Cowan Irvine, CA92614, 전화: 949-250-1111 웹사이트: www.beautifulch.com 김준형 기자

남가주 지역 신천지 집회 경계

한국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한 경계를 미주기독교이단대책연구회장 한선희 목사가 요청했다. 한 목사는 신천지에 관해 “최근 이단회를 평화의 사자로 미화하면서 2세들과 외국인들을 상대로 활발하게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11월 7일 오후 4시에 이단회가 LA 인근 카슨레타호텔(2 Civic Plaza Dr. Carson, CA90745) 앞에서 집회를 할 예정이며, 8일 주일 오전 9시부터 산타애나에 있는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집회를 한다”고 전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교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 목회학박사(D.Min.)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등록마감일: 12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1월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말씀 제일주의 신앙

느헤미야 8:1-12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느헤미야 8:1-12

1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칠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청하며 2 칠월 일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3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매 그 우편에 선 자는 맛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 좌편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다나와 스가랴와 므슬람이라 5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7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처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8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중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잃어 들린 말을 밝히 앎이니라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창조의 근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원대하신 자기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목적을 위해 필요에 따라 관리하시며 사용하십니다. 그 중에 '나라는 존재도 해당되어야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 즉 믿어지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말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1.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사야 선지자는 나라가 망조(亡兆)로 질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1장 19-20절 말씀에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 산채로 톱으로 썰어 토막 내어 죽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낸 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관계회복을 기대하거나 회개할 것이라는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붙여지고 장정이 하루에 삼만 육천 명이 전사해서 기드론 골짜기가 시체로 매워졌습니다. 또 남은 늙은이들과 부녀자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던 기물까지 다 챙겨 그들로 운반하도록 만들어서 바벨론 수산궁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태워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게 살았기에 이 같은 불행을 겪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 바벨론에서의 70년간의 포로생활을 마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귀환을 통해 엄청난 재산을 챙겨오게 하시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통해 그가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깨우치게 하여,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며 배척하여 불행하게 되는 신

세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통해 백성들 중에 회개역사가 있기는 했지만, 포로생활에 너무 지쳐 있던 그들은 꿈에도 그리던 고국에 돌아와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생계와 주택, 앞으로의 삶의 문제에 대해 상당히 혼란한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느헤미야로 하여금 3차 포로귀환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위한 외형적 조건은 갖추어 회복되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 또 다시 외침으로 허물어져 버릴지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회개의 눈물

본문의 내용은 7월 초하루, 나팔절로, 오순절 이후에 있는 절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정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으매 못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율

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 지라"(느 8:8-9) 한 것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지난날 선지자들에게 의해 대언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했던 죄 값으로 너무나 혹독한 환난과 시련, 고통, 그리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했던 70년간의 원인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유익한 진리인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느 8:6)하였다 고 했습니다.

3.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

말씀 제일주의 신앙은 곧 예수님 제일주의 신앙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했습니다. 말씀이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 사람의 영적인 신앙이 생활 속에서 그 만큼 영적체질로 변화되어져 가는 체험을 하면서 스스로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말씀 제일주의 신앙인들로 거듭나서서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이 하늘로 건으로 살리시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 받길 바랍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제25차 정기총회 소집공고

제25차 정기총회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기도와 후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OC 교협 정기총회 (2014.11.20)
2. 신구회장단 이취임감사예배 (2014.12.7)
3. 샌크라멘트 주의회 신년기도회 (영김의원초청)(2015.1.11)
4. 남가주지역 연합기도성회(2015.1.23)
5. 신년하례회와 작은음악회 (2015.1.26)
6. 오렌지카운티 단체장 초청 조찬기도회 (2015.2.14)
7. 삼일절기념 통일 소망기도회(2015.3.1)
8. 7인7색 목양콘서트 (2015.3.12)
9. OC 부활주일 연합예배 (2015.4.5)
10. OC영적 대각성집회 및 목회자세미나 (2015.4.17-19)
11. 국가를 위한 기도의 날 연합기도회(2015.5.7)
12. 요한계시록 세미나(2015.5.12)
13. 제6회 사모블레싱나잇 (2015.6.11)
14. 타민족 사랑의 라면 나눔 행사 (2015.7.11)
15. 70주년 오렌지카운티 연합 광복절행사 (2015.8.15)
16. OC원로목사님 부부 초청 일일수련회 (2015.8.27)
17. OC 차세대리더 장학금 수여식(62명)(2015.10.3)

OC 교협 조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사회 이사장: 엄영민, 총무이사:민경섭 이 사: 박용덕 박학선 신원규 양금호 양문국 윤성원 이종은 정영수 한기홍
후원이사회 이사장: 이범식 이 사: 김명균 김영수 이준영 이종열 전준홍 박광원
회장단 회장 :김기동 부회장: 수석: 민승기 기획: 송규식 대외: 윤덕근 영성: 이호우 목회: 이 서 신학: 남성수 교육: 심상은 평신도: 윤우경
임원 총무:신현철 협동총무:김경선 서 기: 박재만 회 계: 서준석 감 사: 고현종
분과위원장 신학: 오아론 이민목회: 김만태 장학: 김도영 교육: 김익현 여성목회: 이선자 선교: 정에지 전도:박용덕 음악: 김윤식 홍보:이태종 방송: 신 용 문화:유건형 복지: 남상국 친교:서양훈 평신도 이종양 여성: 켈디유 구제: 최정자 차세대: 앤드류김 이영미 청년선교: 더글라스김 실버지역: 주도진 노정도 의료선교: 서문준 캠퍼스: 조형수 다문화: 테드황 IT 분과: 안준현

일시: 2015년 11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갈보리새생명교회 (민승기목사 담임)
 111 W. Las Palmas Dr. Fullerton, CA 92835
TEL: (714)615-9191



회장 김기동 목사

오렌지카운티 기독교 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in Orange County

회장: 김기동 목사 (714)262-1428 총무:신현철 목사(714)321-1891
 서기: 박재만 목사 (213)255-0296

무료 전도지 배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 오늘도 이름없이 빛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전도자 선교사 여러분. 여러분의 고귀한 사역에 동참과, 동역을 위하여, 2016년도 전도용 달력과 전도지와 간증지를 무료로 아래와 같이 제공 하려고 하오니 동역자 여러분의 협력과 아울러 기도 부탁드립니다.

2016년도 전도용 달력 (스패니쉬) 주문을 받습니다. 한국어 영어 스페니쉬 등 각종 전도지와 간증지 CD등을 준비하고, 년중 무휴로 제공하고 있어오니, 전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213)220-3737, 이삼선 목사(선교사)
 장소: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E-mail:psamslee@gmail.com



World Love Mission Foundation

7218 Pacific Blvd Huntington Park, CA 90255
 U.S.A Tel : (213)220-3737 Fax : (323)582-6694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피아노반주 가능한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공고플로리다 주에 있는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신 관계로 이민 목회의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 가실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청빙자격 및 요건

1. 해외한인장로회(KPCA), 혹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소속이거나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사 안수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을 가지신 분
3. 이중 언어 (한국어/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
4. 합법적으로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제출 서류

1. 이력서 (사진첨부, 학력, 목회경력, 일반경력)
2. 목사안수증명서, 신학대학원(M.Div) 졸업 증명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각1부
3. 자기소개서 (본인 및 사모를 포함한 가족 포함 -가족사진 포함)
4.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본 (영어 설교 가능한 분은 1회 분에 한해서 영어 설교 제출) -DVD or Web link 등
5. 연령 45-55세 미만 (사모님 피아노 반주 가능 우대)
6. 추천서 2부 (각 추천인의 밀봉 날인과 추천인 연락처 요망)

제출 방법

1. 우편주소: Lakeland Korean Church
Attn: Pastor Nominating Committee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1018 Neville Ave, Lakeland, FL 33805
2. E-mail: peterkim1953@gmail.com (1-316-644-0035)
청빙위원회 서기 Peter Kim
3. 서류마감: 2015년 11월 14일

기타 사항

1. 제출서류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 함) 혹은 E-mail에 첨부(PDF파일)로 먼저 보내주시고 E-mail로 모든 제출 서류를 보냈음을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에 통과된 분은 추가서류와 면담을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교회 홈페이지(www.lkpc.onmam.com) 통해 기타 자세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한인장로회 동남노회

레이크랜드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김인수 교수의 한국교회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3)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로회신학대 총장

1907년 평양에서 시작된 대부흥 운동의 기수는 김선주 장로였고, 그에 대한 이력은 지난 호에 상세히 기록했다.(부흥 운동 다시 김선주는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였다. 그 해 6월에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해 9월 새로 조직된 독(獨)노회에서 첫 졸업생 6인과 더불어 한국인 첫 목사로 안수됐다. 따라서 부흥운동 시는 장로였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이미 불이 붙은 부흥회는 김선주 장로에 의해 더욱 크게 일어났다. 그의 설교는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다. 길 장로가 설교할 때 현장에 있었던 정익로(鄭益魯) 장로는 다음과 같이 당시의 정경을 기록하였다.

“처음부터 길[선주 목사]의 얼굴은 아니었다. 그는 한때 완전 소경이었고, 당시 시력도 극도로 약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위대한 권위와 권세로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순결과 거룩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길 목사가 아니었고 바로 예수님이였다. 그는 세례 요한에 대해 말하였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쳤는지를 말하였다.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셨다.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무서운 죄악들이 우리들 앞에 쏟아져 나왔다. 어떻게 이것을 떨쳐 버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도피할 것인가 하는 것이 큰 의문이었다. 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이 영감이 내리는 순간 길 장로는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였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는 무리들에게 던져지는 소리였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이렇게 떨어진 성령의 불길은 참석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태우고 더욱 확산되었다. 정월에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2월에 각 학교가 개학을 하면서 여러 학교로 퍼져 나갔다. 숭실전문과 숭실중학교, 숭덕중학교, 광성중학교와 숭의중학교 학생 약 2,500명 사이에 급속히 확산됐다.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부흥운동에 동참하여 회개하는 놀라운 광경이 전개됐다.

학생들은 수업을 중단하고 사경회에 참석하였으며 3월에는 장로교회 부인 사경회가 12일간 열렸는데, 이때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 모든 참석자들이 성령 체험을 했다.

4월 초에는 평양 장로회신학교 학생들이 3개월 만에 개강하는 수업을

교부의 협력 사업이 계속되고, 또한 가까운 장래에 확대된다면, 한국은 비기독교 국가권에서 처음으로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다. 내가 알기로 한국에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선교의 결과가 나온 선교지는 없었다.”

모트는 한국 교회가 부흥 열기에 젖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교인들의 숫자와 모든 교인들이 하나가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는 한국의 복음화가 눈앞에 와 있음을 확신했고 한국이 피 선교 국가 중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 그가 와서 보았던 상황은 적어도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갖게 할 만큼 무르익어 있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 아나벨 니스벳(A. M. Nisbet)도 한국이 이 세대 안에 복음화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언급한 일이 있다.

그러나 사실 모트 이전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만주에서 선교하면서 의주 청년들과 더불어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존 로스(John Ross)였다. 그는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거의 10여 년 전에 “한국은 동양의 국가들 중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첫 나라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부흥의 열기는 중국에까지 퍼져 나가 만주 지방에서 일하던 중국교회 목자들이 평양에 와서 부흥회에 참석했다. 그들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아 본국에 돌아가 부흥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부흥의 열기는 심양, 요양, 만주, 그리고 북경에까지 확대되었다. 장구한 세월동안 우리나라는 중국으로부터 모든 것을 배우기만 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족이 복음과 부흥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는 것은 실로 가슴 벅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실로 한국교회 부흥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 말해야 한다. 역사에서 ‘만일’(if)이란 말을 쓰지 않게 되어 있지만, 만일 이 부흥운동이 없었다면 한국교회 성장은 크게 지연됐을 것이고, 교회는 여전히 미약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에 힘겨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3년 후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더불어 조선왕조의 맥이 그치고, 혹독한 일제의 철권통치 시대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이 부흥운동은 이런 바깥 기간을 견인(堅忍)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마련한 전기가 됐다.(계속, 2015.11.)

시한부 인생



박용덕 목사
남가주빛내리교회

그러므로 ‘더 높은 것을 추구한다’는 학교 교훈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고 당부했다.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베일리는 자신이 쓴 원고를 읽어 내려가다 가끔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연설을 이어갔고, 그의 마지막 연설에 동료 학생들은 우레와 같은 기립박수로 뜨겁게 호응해 주었다는 것이다.

시한부 인생,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한부(Time Limit) 인생을 사는 자들이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은

시한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전3:2)고 하였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히9:27)고 하였으며,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영생에 이르게 됨”(요6:47)을 말씀하고 있다.

18세의 나이에 죽을 앞에서 당당했던 제이크 베일리의 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지만, 그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저 영원한 세계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삼생을 살게 된다. 그것은 바로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다. 태생의 삶이 일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듯이, 일생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

우리 역시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믿음 안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딤후2:14)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영생을 위한 투쟁에 힘겨워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3년 후 일제의 한반도 강점과 더불어 조선왕조의 맥이 그치고, 혹독한 일제의 철권통치 시대로 넘어 갔기 때문이다. 이 부흥운동은 이런 바깥 기간을 견인(堅忍)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마련한 전기가 됐다.(계속, 2015.11.)

“한국행 가장 싼 항공권~ 하나투어로 문의주세요” 서울 왕복 항공권 스페셜 이코노미 \$985 | 비즈니스 \$3645

★ 하나투어만의 성지순례 체험 특전 - 십자가의길 순례체험 ★ [예수님의 걸음걸음 - 성서 속으로] 요르단/이스라엘 10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다(마가복음 11:11)



하나투어 기독교 성지순례는 왜 다른가요~??

- ▶ 기독교 성지순례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한 전문 상담가와 상담 및 운영
- ▶ 성지 순례상품 선택의 폭을 넓여주는 다양한 항공 이용과 합리적인 가격
- ▶ 순례자를 위한 감동 서비스! 믿을 수 있고, 안전한 현지 행사
- ▶ 성격의 이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전문 가이드 와 전문 인솔자 동행

소중한 신앙 체험의 현장에서
순례의 감동을 더해 드리겠습니다.
성지 순례도 역시
**1등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 하세요~**

처음 성지순례를 떠나는 순례객들에게 안성맞춤~ 구약의 핵심을 볼 수 있는 여정입니다.

[요르단] 성경의 땅

- ◆ 영화 [인디애나 존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新 세계 7대 불가사의 페트라 순례
- 페트라 시크길,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수도 등
- ◆ 세례 요한의 순교지 마케루스
- ◆ 길이 1.2km에 이르는 좁은 페트라 시크길
- ◆ 엘카즈네 사원, 야외 원형극장, 왕들의 무덤, 나비티안 유적, 수도 등

[이스라엘]

2,000년 전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 역사와 종교가 살아 숨쉬는

- ◆ 신비로운 바다 사해에서 부영 체험
- ◆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신 갈릴리 순례
- 가버나움, 베드로 수위권교회, 오병이어기적교회, 팔복교회
- ◆ 예수님이 첫번째로 기적을 베푸신 가나와 나사렛 순례
-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마리아 수태고지 기념교회
- ◆ 기독교 최고의 성지 예루살렘 순례
- 감람산과 감람산 주변의 기념교회
-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과 골고다 언덕, 예수님 무덤교회

\$2999

출발일: 2016 1/25
상기 요금은 항공 예약 및 발권 시점에
따라 요금이 인상 될 수 있습니다



NEW | 미서부일주

한층더 여유로운 요세미티 국립공원 전일 관광
남만의 샌프란 시스코 금문공원, 소살리토, 트윈피크 관광
1. 하나투어만이 최신행 리무진 버스! 2. 최선을 다하는 고객감동 서비스
3. 최고의 호텔로 내집처럼 편안한 숙박! 4. 베테랑 가이드와 최고의 식사!

새로운 감동의 시작.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나투어 New 미서부 관광



- 2박 3일
- 그랜드캐년 2박 3일 \$299 출발: 화
- 3박 4일
● New 요세미티/샌프란 3박 4일 \$399 출발: 목, 금, 토
- 미서부 3대 캐년 3박 4일 \$389 출발: 월, 화
- 5박 6일
● New 미서부 5박 6일 \$599 출발: 화, 토
- 6박 7일
● New 미서부 6박 7일 \$689 출발: 월, 화
- 그랜드캐년 8대 캐년 6박 7일 \$799 출발: 12/17
- 스카이워크 2박 3일 \$349 출발: 월
- 기차여행 1박 2일 \$229 출발: 월, 수, 토
- 멕시코 1박 2일 \$179 출발: 월, 수, 토

HNT 하나투어 213.736.1212

무료전화: 1.877.464.6121

- 엘에이 본사 : 213.736.1212
- 뉴욕 직영사무소: 212.706.9177
- 라스베이거스 사무소: 702.723.4977
- 하와이 직영사무소: 808.947.1212
- 한국에서 전화하실때 : 070.8224.4021



Nizmobile
해외에서 편리한 렌탈폰 서비스
이제 로밍폰보다는 렌탈폰!
신불 결제로 더욱 편리해진 나즈 모바일
렌탈폰: 한국여행이 더욱 편해집니다.
하나투어에서 렌탈가능! 시간단축!
(\$600이상 Pre Pay 가능)

이제 온라인으로 편리하고 저렴하게! www.usahanatour.com 3053 W. Olympic Blvd #101 L.A., CA 90006 <올림픽과 아드모어>

한인교회 미래...2세 목회자 육성에 달려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지난달 말 LA 한인타운 내 캘리포니아 인터내셔널대학교에서 '건강교회 포럼'을 개최했다. 늘 그랬듯 이 행사에는 소수의 한인들만이 참석해 진한 아쉬움을 남겼으나 풀러신학대학원 이학준 교수(윤리학)가 '한인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열린 주제발표를 했다. 기독교 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기독교 신앙이 사회의 근간을 이루었던 미국이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등 갈수록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는 가운데 본보는 이 교수의 발표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미래지향적인 목회를 간절하게 꿈꾸는 목회자들이면 누구나 읽고 깊이 고민해야 할 주옥같은 내용이라고 판단, 요약해 지면에 실는다.



지난달 말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이학준 교수.

건강교회 포럼서 이학준 교수 주제발표

한인교회의 미래와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은 지금까지 미국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 왔다. 1930년대 대공황기 빈부차 극복운동이나 1960년대 민권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기독교가 미국에서 문화적 주도력을 잃고 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동성애 합법화 판결이 그 기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1996년의 86%에서 2006년 약 60%, 지금은 약 30%로 급락했다. 한국교회가 급격히 쇠락한 것처럼 미국 교회도 지난 20년간 사회적 영향력을 상실했다.

우리는 급변하는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운다. 그들은 대학에 가면서 주류사회로 깊숙이 들어가지만 그 전에도 이미 세속화된 문화의 많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교회가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민교회는 교육에 성공하고 있을까. 이는 아이들이 이민교회를 떠난 뒤에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와 그들이 건전한 시민으로서 미국사회에서 공헌하고 있는가,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역사적인 시점에서 한인교회 등 아시아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 있다. 미국 내 기독교의 공동화 현상 속에서 백인들의 빈자리를 아시아, 특히 한인들이 많이 채워가고 있다. 기독교가 급성장하는 지역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 미얀마 등 아시아 국가들이다. 그 나라 출신 기독교인들이 이민 오고 싶어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한국의 경우 기독교인 비율이 18% 정도지만, 미국 내 한인들은 약 70% 달한다.

백인교회들이 왜 아시아인들의 유입을 원할까. 자신들의 빈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구사하는 아시아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다음 세대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미국 안에서 기독교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시대에 아시아인들은 가정 공동체 및 결혼 중시, 훈인관계 속에서 자식을 양육하려는 성향 등 독특한 강점을 살려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가정, 교회, 사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백인들이 해왔던 중심 역할, 즉 문화 형성자 및 선도자로서의 기독교인의 역할을 맡게 된다.

요즘 젊은이들은 영성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고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가치관은 확실히 다르다. 그들은 자기와 사교방식이 맞는 곳에 가서 봉사하고 헌금한다. 문화적으로 미국의 탈기독교화가 이뤄지는 지금은 교회가

옛날에 해오던 식으로 해서는 젊은이들을 잡기 어렵다. 이미 후기기독교 시대를 넘어 바벨론 포로기에 들어간 셈이다.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은 세월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교회가 소수민족 사회 안에서 갖는 의미는 독특하다. 백인들의 인종차별(많은 경우 음성적 차별) 속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문화 언어 및 역사 공동체, 사회 정치 및 종교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그것이다. 이민자들이 거주하면서 숨 쉬는 곳이 교회다. 우리 2세대는 영어를 잘 해도 백인교회를 잘 가지 않는다. 한인교회 내에서 EM(영어사역부서)를 만들거나 아시아교회로 간다. 백인교회로 가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다. 주류사회에서 일해도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하는 데서 스트레스를 푼다.

바다에서 풀뿌리 목회로 수고하신다. 그러나 보람의 열매를 맺으려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한인교회가 가는 방향과 이민자들의 변화 동향을 알아야 한다.

다음 세대들은 한국인, 미국인, 크리스천이라는 세 가지 아이덴티티가 통합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가치의 통일을 이루지 못해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다. 한인교회의 경우 유교적 전통의 뿌리가 깊어 더욱 갈등을 느낀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본인들이 가진 가치를 상대화시킬 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이라는 틀 속에서 한인들이 가진 유교가 기독교에 의해 거둬야 한다. 한국교회가 저런 꼴이 된 것은 샤머니즘과 불교를 격퇴하고 나아가려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것들에 잡아먹혀 틀은 기독교인데 속은 기복주의가 되었기

엄청난 시간과 인력, 정신적 에너지가 낭비된다. 그 스트레스가 우리의 상상력과 창조력, 밖에서 해야 할 사역 등을 삼킨다.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 신약의 산상수훈 등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는 룰(규범)을 공유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공동체가 생긴다. 우리 안의 싸움이 너무 많다 보니 밖의 돌아가는 것을 이해하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없다. 제가 만나본 많은 목사님들은 리더로서 안의 조직을 잘 이끌어가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시는 분들이었다. 하지만 이민교회 주변의 생태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교회가 신앙적 유기체로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이민자의 갈 길을 제시해야겠다는 비전을 가진 분들은 극소수였다. 목회자들이 단지 성도의 헌금에만 관심을 갖는 대신에 성도의 비즈니스를 알고 혹은 인 및 히스패닉 목사님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긴장을 완화시켰다면 LA 인종사태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목회자는 한 손에는 성경,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사회, 문화의 다이내믹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목회자들은 성도가 같이 나가 싸워야 할 현장과 그 신학적 대의를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힘을 합해 밖의 문제 해결 노력을 하다 보면 내부 갈등은 많이 줄어든다.

저는 앞으로 1세 목회자 재교육, 1.5세 및 2세 사역자 재교육을 힘쓰려고 한다. 현재 100과로 구성된 교재 중 34과를 집필하고 있다. 50세를 넘긴 1.5세 및 2세대들과 공동 작업하고 있다. 그것이 이민교회가 집중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한인교회의 영성은 하나님 만난 경험 이후에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쪽으로 많이 전진하지 못했다. 이민교회는 광야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변화해야 한다. 환경에 예민하게 대응하고 구성원의 힘을 합해야 한다.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출애굽을 넘어서 임가나안(가나안에 들어감)을 기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인재를 키워야 한다. 2세들의 조용한 한인교회 탈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들이 우리 자녀들을 교육시킬 2세 한인 목회자들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목사님들은 2세대에게 맡기면 청소년 신앙교육이 다 잘 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그들도 아시아-아메리칸됨의 의미에 대해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 조직적인 훈련과 멘토링을 받아 성장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들을 돕지 않으면 지금 한인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은 훗날 한인교회와는 관계없는 곳으로 갈 것이다.

정리: 김장섭 전문위원

미 기독교 사회적 영향력 급감 와중 동성결혼 합법화 판결 자녀들 정체성 확립 등 준비시키면 주류 속 중심역할 가능

이민교회는 이같은 인종, 문화적 다이내믹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아시아인의 47%가 가주에 산다. 모여 살며 심리적 안정감을 추구하는 까닭이다. 이 힘을 잘 축적하고 발전시켜 건강한 정체성 속에서 바깥쪽(미국 사회)에 변화를 던져줄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잘 살려야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복음주의 기독교 안의 비어가는 자리를 이어갈 수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이민교회의 과제다. 유대인들처럼 안으로는 끈끈하고 밖으로는 진취적인 정신을 가져야 한다. 주도면밀하게 이런 형태의 영성과 신앙을 심고 세워가야 한다. 이민교회는 이제 이민사회의 중심으로서의 사명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민교회는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이민, 일제시대 독립운동, 독재와의 싸움 등을 통해 이민 사회 역사가 되었다. 안타까운 것은 이민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어떤 일을 했는지를 가르치는 교회가 없다는 점이다. 많은 목사님들이

때문이다.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유교적이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 130년만에 바뀌기는 쉽지 않다. 깊이 노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한국교회는 걸로로는 우상숭배 하면 안 된다, 점 치면 안 된다 라고 강조해 놓고 속의 정신은 그것들과 다를 바 없었다. 이민교회도 많은 결정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에서 아니라, 한국적 문화의 습성에서 내려진다. 기독교 가치관은 무관한 일들을 너무 오래, 너무 많이 해 왔다. 한인 이민자의 약 70%가 교회에 나온다는 큰 장점에는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지도자들까지 다 잡아먹힌다는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이민교회 내 갈등을 해결하려면 공동의 윤리적 준거틀이 존재해야 한다. 그 안에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강준만 교수의 말처럼 한인들은 감과 울의 관계로 나눠진다. 개혁이 필요하다. 교회가 신앙적 가치관을 통해 그것을 뒤엎고 새롭게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 내면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 내부 갈등 때문에



지난달 말 열린 LA기운실 주최 건강교회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주제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5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1-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edu</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상담학 석사: 신학/목회학/상담학 박사: 신학/상담학</p> <p>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징: Sevis 1-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솔로몬대학교 말씀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1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I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Th.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1-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p> <p>총장: 류종진 박사, 이사장: 김광민 목사 1818 S. Western Ave. Suit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 Fax (323)643-0302 www.aeu.us / aeuimaster@gmail.com</p>



집회 첫날인 2일, 서울역 광장에서 교인들이 촛불을 든 채 찬양하고 있다.

“2015 홀리워크”

北 위해 곳곳에서 기도 ... 매일 5백 명 이상 총 3천여 명 참여

“70년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7일 통국기도행진”을 주제로 1주일간 계속된 ‘2015 홀리워크’가, 주일이었던 지난 8일 서울 정동제일교회(담임 송기성 목사) 집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이하 북인련)이 주최한 ‘2015 홀리워크’는 통일광장기도연합이 첫날 서울역광장 집회를, 서울기독교청년회(대표 최상일 목사, 이하 서기청)가 나머지 6일간의 집회를 각각 주관했다. 강사로는 김형민 목사(대학연합교회), 안희환 목사(예수비전교회), 다니엘김 선교사(JGM 대표),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 이영희 교수(에스더기도운동), 송기성 목사(정동제일교회), 손인식 목사(북인련 실무대표) 등이 나서 북을 통일을 위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들은 ‘내 손으로 하나가 되게 하리라

(겔 37:21-22)’,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속 4:6-9)’,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의 회복(신 4:1-14)’, ‘이길 수밖에 없는 영적 전쟁(고후 10:1-8)’,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롬 9:1-3)’,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약 1:26-27)’, ‘평범에서 비범으로(에 4:14-17)’ 등을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올해로 6번째를 맞은 홀리워크는 대형교회 등의 조직적 동원 없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모이고 있음에도, 매일 500명 이상씩 연인원 3천여 명이 참석해 뜨겁게 기도했다.

특히, 이번 홀리워크에는 7일간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는 ‘7일기도헌신자’ 70명이 기도도 헌신했다. 이들은 마지막 날 축복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이대웅 기자



회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으로부터 순서대로) 장원민 목사(한국기독교공정정책개발연구원장), 김경철 회장, 김영진 대표, 홍문중 회장, 전용태 총재,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경수근 변호사(법률담당 고문)

“동성에 합법화 저지 적극 나서자”

교계 평신도 단체들 ... 국가인권위법 개정 방안 등 논의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열고 동성에 합법화 저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조찬기도회 감경철 회장, 국회조찬기도회 홍문중 회장, 세계한인교류협력기구(W-KICA)와 한·일기독의원맹 김영진 대표,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전용태 총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중 ‘성적 지향’과 관련된 조항, 그리고 16개 광역 교육청 단위의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는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우선 이날 중 교단 총회장들과 선교기관 대표, 평신도단체 회장 등을 국회로 초청, 관련 현안을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해 이를 당국에 청원하기로 했다.

김영진 장로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차별금지법안은 교계의 반대로 현재 국회에서만큼은 관련 입법을 걱정하지 않아

도 되는 상태”라며 “다만 국가인권위법 중 일부 조항과 학생인권조례가 여전히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했다.

전용태 총재는 “이것을 앞으로 하나하나 고쳐가려 한다. 일단 교계 지도자들을 초청해 현안을 보고하며 이 문제들도 언급할 것”이라며 “현재 동성에 및 동성혼 합법화에 반대하는 교계 서명운동이 진행 중인데, 이런 것들을 포함한 교계의 하나된 여론을 국회 등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를 상설화해 교계와의 유기적 연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평신도 선교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을 발굴해 지원하고 그 업적을 기리는 일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국회조찬기도회 창설 50주년을 맞은 올해, 이를 기념하기 위한 비(碑)를 올려 안에 건립하는 방안도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진영 기자

“서울신대, 국내 최초 ‘설교대학원’ 개설”

서울신학대학교(총장 유석성 박사)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2016학년도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가운데, 국내 최초로 ‘설교대학원’을 개설했다.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설교전문 특수대학원 이기도 하다.

설교대학원은 ‘학문적 설교’보다 목회 현장의 ‘실천적 설교’ 향상에 주력하고, 설교자 개개인의 설교를 진단하여 설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수강생들의 매주일 설교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완성된 설교문을 제공한다. 서울신대는 교내에 설교 실습실과 함께 개인별로 설교를 촬영하고 확인할 수 있는 ‘프린팅 랩’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설교대학원 수업은 절기 설교, 윤리 설교, 교리 설교 등 다양한

종류의 설교를 위해 성서신학을 비롯해 예배학, 조직신학과 윤리학 등과 설교학 교수진들이 공동으로 강의하거나 토론하면서 진행되는 수업을 추진 중이다.

교수진은 교과를 초월하여 한국교회 강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이들을 초빙할 계획이다. ‘설교’로 잘 알려진 박선희(소망교회 원로)·이동원(지구촌교회 원로)·김남준(열린교회) 목사 등을 초빙교수와 대우교수, 석좌교수로 섭외 중이다.

주요 개설과목(예정)은 △명사특강 △금주의 설교 준비 △설교를 위한 수사 훈련 △교회 절기와 설교(예배학 교수와 합동 강의) △16가지 특수설교(교회 현장의 다양성 고려) △설교 개인 클리닉(개인별 설교 진단 및 처방) △현대인을 위한 필수 설교 형식 등이다.

이대웅 기자



LA 지역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2세를 책임지며, 이만가정을 살피고, 선교영광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세벽 - T. (213)386-2233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 (818)983-9024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갈릴리선교회
함께 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CA 90006
T. (213) 272-6031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66
T. (213) 487-3920

나성열린문교회
생명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3251 W. 6th St., LA, CA 90020
T. (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598-0191

새하늘 교회

2909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el. (213) 500-3721 / www.Newheavenchurch.com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7-1700 / T. (310)500-4737 / olympic-church.org

임마누엘선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 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인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한마음제자교회
심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321-4433

김범수 치과
General & Cosmetic Dentistry

1011 S. A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19
T. (213)389-0937, (213)389-0938 F. (323)735.1937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열매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396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월)서와 월(토) 열 T. (213)380-0071

요한 선교교회

gkal44@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충현선교회
블라세(Calling), 고치교(Healing), 기르매(Maturing), 맞선교(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hyun.org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자유와 행복이 있는 성령의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Es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s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 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 sunhanchurch.org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김성민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T. (626) 872-2405 /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최승묵 담임목사
팜스프링스 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사우스 베이 지역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213) 365-9188

김영구 담임목사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 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 shalomch.org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schurch.com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김바울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hurch.com

정영희 담임목사
드림교회
 "주의 꿈을 품고 세상의 빛으로"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벤츄라카운티장로교회
 '예수의 십자로에 섬기는 교회' (월1:8)
 737 W. 6th St., Oxnard, CA 93030
 T. (805) 483-7009

곽력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예배 - 오전 8:00 / 9:45
 금요영성예배 - 저녁 7:45
 새벽예배 - 월-금 5:3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세리토스채플 Cerritos Chapel
 주일예배 - 오전 9:30 / 11:30
 목요영성예배 - 저녁 7:45
 13808 Imperial Hwy., Santa Fe Springs, CA 90670

비전채플 Vision Chapel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12631 E. Imperial Hwy., #F134
 Santa Fe Springs, CA 90670

최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el.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최호년 담임목사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나가는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문/서/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리처드-베티 오드가드 부부. ©베켓재단

동성혼 거부로 문닫은 결혼식장 교회로 거듭나다

오드가드 부부, 앞으로 기독교 단체 보호 위해 헌신키로

미국 아이오와주 그라임스(Grimes)에 소재한 식당 겸 미술관 겸 예식장 '고르츠 하우스 갤러리(Görtz Haus Gallery)'의 주인 리처드-베티 오드가드 부부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 부부는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 요청에 거부 의사를 밝힌 후 약 2년 만인 지난 8월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이 동성커플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아이오와 시민인권국(Iowa Civil Rights Commission)을 통해 오드가드 부부를 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결국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했다. 지역 언론이 이번 사건을 보도한 후 다른 커플들도 잇따라 예약을 취소하면서, 이 결혼식장은 큰 타격을 입었다. 오드가드 부부는 결혼식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더 많은 불만과 소송에 시달릴 것을 우려해 문을 닫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결과적으로 좋은 기회가 됐다. 두 사람은 이 결혼식장 건물을 '하베스트바이블로우십'이라는 교회 네트워킹에 소속된 하베스트바이블교회(초교파)에 팔았다. 이 교회는 두 사람이 지난 9개월 동안 출석 하던 곳이었다. 베티 여사는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갤러리를 운영할 수 없었다면, 교회는 그 다음으로 최고의 선택이다.

우리는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이 교회는 교인 수 약 170명 규모이다. 라이언 조젠슨 담임목사는 "2년 전 교회 창립 후 지금까지 장소를 빌려 예배를 드려왔는데, 이제 우리의 예배 장소를 갖게 됐다. 오드가드 부부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오드가드 부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가장 큰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로서 알려지길 원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치면서 우리 공동체에 복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오드가드 부부가 결혼식장 사업을 위해 구입했던 77년 된 교회 건물은, 다시 원래의 기능대로 쓰이게 됐다. 베티 여사는 "결혼식장 사업은 우리에게 중요했고, 이 장소는 결혼식에 어울리는 무척 아름다운 장소였지만, 우리의 신념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드가드 부부는 이번 경험에서 영감을 받아, 기독교적 가르침과 성경적 질서, 자연의 법칙 등을 가르치는 비영리 단체인 'God's Original Design Ministry'를 설립하고 동성결혼 문제와 관련해 기독교 단체들을 보호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기로 했다.

강해진 기자



동성애자 애니스 파커 시장. ©FRC ACTION

휴스턴 주민투표서 '화장실 혼용 조례' 압도적 부결

텍사스주 휴스턴시가 추진해 온 화장실 혼용 조례가 시민들의 압도적인 반대 속에 부결됐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휴스턴 시에서 실시된 '휴스턴 평등 인권 조례안' 투표는 반대(61%)가 찬성(39%)을 압도했다. 이에 따라 이 조례안은 조만간 폐기될 전망이다. 맨 패트릭 텍사스주 부지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우리의 할머니와 어머니, 아내와 여동생, 딸과 손녀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옳지 않은 정치적 정당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을 지양하는 것)을 휴스턴시민이 끝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성애자인 애니스 파커 시장은 지난해 5월 인종·피부색·국적·나이·종교·성 정체성에 따라 주택·계약·고용·공공시설 이용에서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반대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조례안을 밀어붙였다. 평등권 조례 중 동성애자 권리 조례는 공공시설 및 직장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휴스턴시 법령 2장 15조와 17조를 개정한 것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안이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 등 성 구분이 있는 공공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남성이라도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논란이 일었지만, 휴스턴시의회는 지난 2014년 5월 찬성 11, 반대 6으로 이 조례안을 가결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법안 폐기를 위한 주민투표를 제안하는 탄원운동이 일어났다. 이들이 주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탄원서 서명자 수 1만 7,269명의 2배가 넘는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기준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휴스턴시는 이를 받아들일지 거부했다. 게다가 탄원운동을 이끈 목회자들은 설교 뿐만 아니라 교인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동성애나 성 정체성, 또는 동성애자 파커 시장에 관련된 발언 등이 대상이었다. 휴스턴시는 더 나아가 '휴스턴 5인 목회자'로 알려진 보수적인 목회자들에 대해 소환장까지 발부해 다시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가운데 전 해리스 카운티 공화당 최고위원인 자레드 우드필(Jared Woodfill) 등이 이 법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텍사스주 법원은 휴스턴시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11월 3일 주민투표에 부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파커 시장이 조례 폐지를 거부함에 따라 11월 3일 운명의 주민투표가 실시됐던 것이다.

이혜리 기자

가치있는 선택 Q water

무한 나노 에너지 산소수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고유의 물 특성은 그대로 살리고 순수산소의 입자를 일반물보다 수백만배 이상 용해시킨 물입니다.



예로부터 물 좋은 고장 장성에서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특수한 증류 공법과 EPU(Energy Processing Unit) system, G.K Oxy(주)의 물 1ml당 200억개 이상의 산소와 수소를 고농축 시킬 수 있는 원천기술이 융합하고 무기포용해장치를 통해 물속에 산소를 완전 용해시켜 인체에 가장 유용한 산소 농도의 상태(30ppm이상)를 유지하는 전세계 유일의 나노에너지 산소수이다.

천연 그대로 살아있는 신선한 물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는?

▶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면역력 및 면역 조절능력이 2배 이상 증가하여, 질병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높여줍니다. 병원균을 치사율에 가깝게 인공 감염 시 생존율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 검증하였습니다.

Q water를 체험한 여러 사람들이 Q water의 효능을 인정하고 애용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임상실험을 통해 더욱 많은 체험 사례와 효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 마시기 편합니다.

물이 부드러워, 물 마시기 어려운 환자들도 이 물만은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의 순환작용이 빨라, 마신 후 소변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생체기능을 맞추어 줍니다.

수일 내에 변비가 없어지고 피로감을 억제하고 피를 맑게 해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Quality water 나노에너지 산소수 Q water의 필요성

물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 흡수가 빨라 인체에 다량의 산소를 공급합니다. Q water는 3~4일 만에 몸이 좋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Q water를 마시면 맑은 숲 속에서 느낄 수 있듯이 머리가 맑아지고 상쾌해 집니다. 명인들의 연구결과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임산부, 수험생,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나노에너지 산소수란 일반물보다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물

최첨단 나노기술을 이용, 고유의 물 특성을 그대로 순수산소(99.9%)를 일반물보다 5~20배 용해시켜 놓은 물로, 용전산소는 인체의 건강과 수명에 커다란 영향이 있다.

산소는 물로 마셔야 효과가 더욱 좋다.

물로 마시는 산소는 호흡하는 것보다 5배 이상의 흡수효과가 있다.

주요특징

- 증류공법으로 탄생한 무한 에너지의 음료
- 다양한 분야로 적용가능하며 타제품과의 용이한 결합성
- 물을 전기분해하거나 고속모터를 사용하지 않음으로 친환경적임
- 세포속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여 젊음을 유지
- 나노기포가 1ml당 2억개 이상 용존되어 용존량이 지속적 유지
- 나노에너지 산소수에 대한 실험 및 분석을 통한 과학적 검증

www.elimwater.com | www.urimul.co.kr

ELIM USA, INC. Tel. 213.235.7360

1201 S. State College Blvd., Fullerton, CA 92831

대리점 문의, 상담해 드립니다.

|| 개신교 선교 인물사(5)

윌리엄 C 타운젠드(1896 - 1982)

개신교 선교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들을 현대 선교의 역사적 관점으로 조명해 봄으로써 오늘날의 선교전략 연구 및 실행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본 자료는 양태철 목사(GMI(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제공으로 연재한다. -편집자 주



윌리엄 C 타운젠드 (William Cameron Townsend)

타운젠드(Townsend)는 '감추어진 언어 그룹'(hidden linguistic group)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여 복음을 전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동시대의 맥가브란(Donald A. McGavran, 1897-1990)은 '감추어진 부족 그룹'(hidden people group)에의 복음 전도를 강조하였다. 랄프 윈터(Ralph D Winter, 1924-2009)는 이 두 사람의 개념을 정리하여,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세계복음주의 선교 대회에서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Group) 선교운동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契機)로 미전도 종족 선교에 불이 붙게 되었으며, 1989년부터의 '10/40 창문 기도 운동'을 통하여 확산되었다.

타운젠드(Townsend)는 1917년,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과테말라에 스페인어 성경을 보급하는 단기 선교를 하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하루는 산악 부족인 중의 하나인 카치켈 마야(Kaqchikel Maya) 인디언 할아버지에게 성경을 보급하게 되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통역을 통하여 타운젠드(Townsend)에게 말하길, "이보게 젊은이, 자네가 전하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랴면, 왜 우리 카치켈(Kaqchikel) 인디언 언어로 된 성경을 주시지 않는가?" 라는 말에 큰 충격(衝擊)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2년 간 카치켈(Kaqchikel) 언어로 신약 번역을 위하여 헌신(獻身)하게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타운젠드(Townsend)는 1936년에 성경 번역 선교사의 훈련을 위한 SIL(The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를 설립하고, 이어서 1942년에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BT,

Wycliffe Bible Translators)를 설립하였다.

여름 언어학 연구소(SIL, Summer Institute of Linguistics)는 성경 번역 선교사들에게 성경 번역에 필요한 언어학 훈련, 문화인류학, 문맹퇴치, 컴퓨터, 번역, 영적성장 기본기의 훈련을 1-2년 한다.

또한, 이러한 사역을 기술적으로 돕기 위하여, 그는 1948년에 JAARS(Jungle Aviation And Radio Stations)을 설립하였으며, 2012년에 JAARS는 항공 외에도 지상 교통수단, 수상 교통수단, IT 기술(Information Technology)과 미디어 기술을 통한 성경번역 사역을 돕게 되었다.

이러한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BT)는 2011년에 선교회의 명칭을 Wycliffe Global Alliance(WGA)로 변경하여, 60개 국, 120개 이상의 선교단체와 협력하여, 미전도 종족 선교를 위한 성경번역과 문맹퇴치 및 교육사역 등을 6,500여 명 이상의 선교사가 감당하고 있다.

필자는 1999년 말, 호주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WBTA, Wycliffe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를 창설한 윌리엄 C 타운젠드.

Bible Translators in Australia)에서 객원 선교사(Guest Helper)로서 6개월 간, 호주 내의 아시아인 교회들을 대상으로 선교동원과 선교 협력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특별히 타운젠드(Townsend)가 강조하였던,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원주민의 언어로 쓰인 성경이다. 성경은 안식년도 필요 없고, 외국인이라 배척받을 일도 없고, 은퇴도 없고, 사망도 없다." 라고 말한 점은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 중요하고, 효과적인 선교이자, 선교전략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약 72억 1천만 명 이상의 인구가 6,909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신,구약이 완전히 번역된 언어는 531개, 신약만 번역된 언어는 1,329개, 부분적으로 번역된 언어는 1,023개가 된다고 한다(2014년 WGA 통계). 미전도 종족 선교에 있어서 성경 번역은 가장 핵심적인 선교이자, 선교전략으로 볼

수 있다. 문자 혹은 구두(orality)로 된 성경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원했던 타운젠드(Townsend)의 비전과 꿈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품고, 행해야 하리라 생각한다. 주님의 재림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롬 11:25-28), 이방인의 총만 수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오직 성부 하나님의 때(마 24:36)가 되므로,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선교가 필요한 것이다. 아멘!



양태철 목사 GMI(은혜한인교회) 선교팀장

“기술과 미디어 활용해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 선교 세미나서 해외 전문가들 강연

한국전문인선교협의회(회장 강요한 선교사)가 주관하는 '미디어&IT 선교 세미나'가 10월 31일 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강당에서 '복음에 날개를 달다'를 주제로 열렸다. 이 세미나는 11월 5일까지 서울과 평택, 상주, 포항에서 계속됐다.

이번 세미나는 복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최신의 미디어와 IT 기술 등을 사용하는 방법과 의미 등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 첫날이었던 이날, 스마트폰 앱 개발 및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해 복음 미디어 배포 사역을 하고 있는 스티브 비셀(Steve Bissell, Kolo그룹 대표)과 CCC 미디어 전략팀 및 '예수 영화' 프로젝트팀 전임 사역자인 니퍼 심스(Nifer Sims)가 강사로 나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먼저 비셀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언어"라며 "언어가 서로 다르다는 것도 그렇지만, 이 세계에는 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도 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에게 어떻게 예수를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내리셨지만 이 명령을 접한 제자들은 '땅끝까지 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비셀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하자 이어 강단에 오른 심스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 언어 외에도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방법이 있다. 바로 기술이다. 우리는 현대의 기술을 통해 여러 장애물을 무너뜨릴 수 있다. 언어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스는 세계적인 IT기업인 '구글'이 지구상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을 연결할 수 없는 지역에 그 대신 거대한 풍선을 띄우는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구글은 전 세계 모든 이에게 인터넷을 제공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전하기 원한다. 사람들이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예수를 알게 될 수 있다"고 했다.

심스는 "이처럼 최신의 기술은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 바울 사도 역시 당시 로마가 닦아 놓은 길을 따라 복음을 전했다. 과거 인쇄술을 비롯해 라디오, TV 등의 발명도 복음 전파에 효과적으로 활용됐었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바울 사도가 혁신적이었고 도전적이었던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영화는 복음의 훌륭한 전달 도구가 될 수 있다. 어느 부족은 그들의 언어로 된 '예수 영화'를 처음 접한 뒤, 그 자리에서 약 2시간 동안 시청했다"며 "이렇게 자신

의 언어로 된 미디어는 복음 전달에 매우 효과적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깊은 대화로 바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영상 등 미디어를 활용하면 보다 쉬울 수 있다"고 했다.

심스는 "바울 사도는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는 이를 어떻게 믿고 부를 수 있느냐'(롬 10:14)고 말하며 '전파하는 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 때 끝이 온다'(마

24:14)고 하셨다"며 "이는 단지 소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우리가 기술과 미디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그를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셀과 심스 외에도 칼빈과 캐롤 큰키 부부(Create International 디렉터)와 강요엘 씨(인터콧 IT사역 총무)가 이번 세미나 강사로 참여했다. 김진영 기자



'미디어&IT선교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겨울학기 학생모집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5년 겨울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

- 1. 신학 대학교 신학(BA) - 4년 / 126학점
- 2. 신학 대학원
 -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 3. 일반 대학교
 -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 5) ESL 과정 - 1년
 -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 * 이번 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가을학기 개강일 : 2015년 9월 21일(월) ~ 11월 27일
 겨울학기 개강일 : 2015년 12월 07일(월) ~ 2월 12일
 봄 학기 개강일 : 2016년 2월 15일(월) ~ 4월 22일
 여름학기 개강일 : 2016년 5월 16일(월) ~ 7월 22일

4.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천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천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찬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삶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

겨울학기 등록 안내 : 2015년 12월 7일 까지 등록 마감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Need color ?

Precise Enhancement
Multi-function Printer

최첨단 고해상도 칼라 디지털 복합기
칼라복사 / 칼라프린트 / 칼라스캔
팩스/네트워크/Mobile Productivity
최고의 인쇄 품질
획기적인 비용절감



Green M. Wild IMAGE SYSTEMS TEL : 213 705 7778
www.GreenMWild.com . GreenMWild@Gmail.com
bizhub C554e/C454e/C364e/C284e/C224e

- C554e Colour B&W 55/55 ppm
- C454e Colour B&W 45/45 ppm
- C364e Colour B&W 36/36 ppm
- C284e Colour B&W 28/28 ppm
- C224e Colour B&W 22/22 ppm
- Dual Scan ADF 160opm Duplex
- Dual Scan ADF 80opm Simplex
- Emperor Drive!
- USB Print
- Colour Internet Fax
- Mobile Support



Simitri with Biomax *Optional : Fax & Finisher

●종교개혁

루터와 칼빈은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지난 주 종교개혁 주간을 맞아 루터와 칼빈을 위시한 개혁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보다 쉽게 루터와 칼빈의 신학적 차이를 이해하도록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칭의란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성화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인간이 어떻게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칭의가 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와 연관되는 반면, 성화는 성령을 통한 인격과 삶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렇다면 종교개혁가 루터와 칼빈은 이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1. 루터: 칭의의 신학자

먼저 루터 신학은 언제나 칭의에 강조점이 있다.

즉, 율법을 통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점을 언제나 강조한다. 루터에게 있어칭의와 성화는 서로 동등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강조점은 칭의론에 있다. 그리고 성화는 칭의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본다.

루터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결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언제나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의 결과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 점은 루터가 소교리 문답서에서 십계명에 대해 설명할 때 잘 드러난다. 루터는 십계명의 각 계명에 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때 그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말한다. 언제나 칭의를 강조하는 루터 신학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려진 대로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부른다.

2. 칼빈: 성화의 신학자

루터와 달리 칼빈 신학은 성화를 강조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인간이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즉 성화에 강조점이 있다.

루터의 신학에 있어 성화는 칭의의 결과인 반면, 칼빈의 신학에 있어서 성화는 칭의와 서로 동등한 중요성을 갖는다.

칭의와 성화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곧 하나님 사랑이다. 이때문에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강조한다.

성화를 강조한 칼빈 신학의 특징은 그의 저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화’를 ‘칭의’보다 앞서(구원론 제일 서두에) 논의한다는 점이다. 칼빈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화해와 새로운 삶(성화)을 동시에 다루는 이유는... 삶의 성화, 참된 거룩함이 의의 전가(칭의)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3.1).

“칭의의 주제는 좀더 가볍게 다루어진다. 왜냐하면 믿음은 선행을 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편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3:11:1).

3. 루터란 학자들과 개혁교회 학자들 간의 논쟁점

루터란 학자들과 칼빈을 위시한 개혁교회 학자들 사이에서는 칭의를 강조하는 루터와 성화를 강조하는 칼빈의 이러한 신학적 강조점의 차이로 인한 오랜 논쟁이 있어왔다. 루터란 학자들은 칼빈이 성화를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고,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고 비판한다.

반면에 칼빈을 위시한 개혁교회 학자들은 루터가 칭의론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성화, 즉 인간의 책임성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한다.

여기에 더해, 개혁교회 학자들은 루터가 오직 믿음만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선한 행실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루터란 학자들은 루터의 오직 믿음



정진오 목사
시온루터교회 한인담당

은 선한 행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성을 강조한다고 변론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내용은 별도 도표를 참조하기 바란다.

4. 루터와 칼빈이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렇게 강조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는 두 사람의 학문적 여정과 관계가 있다.

루터의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 출신으로 루터가 법대에 진학해 법률가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1505년 7월 2일 고향집에서 에어푸르트르 돌아오는 길에 스토테른 하임(Stottemheim) 근처 마을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우뢰를 만났다. 죽음과 두려움의 공포를 경험한 루터는 땅에 앞드려 “수도사가 되겠다”고 기도했다.

이후 루터는 사제서품을 받고, 신학을 계속 공부한 후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서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시작으로 30년 이상 신학을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였다.

반면에 칼빈은 사회적 지위와 부를 가진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칼빈은 몬테그(Montaigne) 대학에서 철학을 4년간 전공하고 문학사

학위를 받았다.

칼빈의 아버지는 본래 칼빈이 신부가 되기를 원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칼빈이 법학을 전공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이후 칼빈은 아버지의 권유를 받아들여 오를레안(Orlean) 대학에서 법학을 배우게 되었다.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다른 신학적 배경은 칭의와 성화에 대한 둘의 이해에 있어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신학을 전공하고 사제 서품을 받아 신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루터는 중세 후기 교회와 교황의 타락을 목격한다. 더구나 ‘하나님도 자신의 최선을 다한 인간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중세 후기 스콜라 신학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그리고 바울과 아거스틴을 따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며 칭의에 더 강조점을 둔다.

반면에 철학과 법학을 전공한 칼빈은 인간의 삶과 연관된 성화의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 것이다. 칼빈이 제네바를 신정도시로 만들려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신학적 배경에서 출발한다.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차이를 한국적 정서로 표현해 보면, 루터는 언제나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죄인이고 불효자라고 눈물을 흘리는 반면, 칼빈은 지금껏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이제 보답하기 위해,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5. 칭의와 성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무엇일까?

칭의와 성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루터와 칼빈 중 누가 신학적으로 맞느냐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강조점을 어디 두느냐의 차이이다. 칭의와 성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칭

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루터가 강조하듯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인간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성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칼빈이 지적하듯이, 성화 또한 칭의 못지 않게 기독교인의 삶에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성화 또한 인간의 노력이나 책임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중세 스콜라 신학이 구원에 있어 선행, 행함을 강조하다가 타락했으니,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오직 성경 말씀으로만!’을 강조했다.

루터가 이렇게 말할 때는 아무 일도 안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진실된 믿음은 인간이 상상도 못하는 사랑과 선행이 우리나라도 록 만든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이성과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루터는 칭의 교리가 말로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조항이라고 부를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다.

반면에 칼빈은 “믿음이 선행을 가져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편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성화를 더 중요하게 다룬다.

루터와 칼빈의 이러한 신학적 강조점은 누가 옳고 그르냐의 논란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칭의와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준다.

칭의와 성화에 대한 바른 이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임을 잊지 말자.

루터와 칼빈 비교

	루터	칼빈
신학적 출발점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
칭의와 성화의 관계	칭의 > 성화	칭의 (->) 성화
신학적 강조점	십자가 신학	하나님의 영광
약점	인간의 책임성 약화	하나님의 은혜 약화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 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트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www.fbmcopiers.com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추천

사람과 사람

강동완 박정란 | 너나드리 | 544쪽

국내 최초 북한 주민 100명 면접 설문 결과를 펴낸 책이다. 크리스천 북한 전문가 부부가 쓴 통일 이야기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잘 모르는 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에 대해 전해 주는 책이다. 부제는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 저자들은 5개월간 북·중 국경에서 북한 사람 100명을 만나 들은 진솔한 이야기들을 책에 담았다. 탈북민이 아닌 북한 주민들 대상 설문조사.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

미야타 미츠오 | 홍성사 | 26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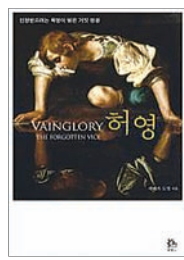
국내 첫 소개된 <탕자의 정신사>로 시공간과 분야를 망라한 '탕자의 비유' 해석 솜씨를 보여 준 저자의 책 <동화의 숲에서 절대자를 만나다>는, '모든 이야기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동화(童話·어린이를 위하여 동심을 바탕으로 지은 이야기) 여러 편을 심리학 등을 동원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상징적인 말로 전개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동화를 '신앙 세계에 대한 비유'로 본다.



허영

레베카 드영 | 두란노 | 272쪽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빛을 거짓 영광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속에 또아리고 있는 이러한 헛된 욕망인 허영을 집중 조명하며, 허영이 우리 마음에 침투하여 어떠한 영적 작용을 하는가에 대하여 자세히 말해 준다. 특히 사막 교부들로부터 중세에 이르기까지 허영의 영적 문제로 고뇌했던 이들이 어떻게 이를 해결하려 했는지 그 여정을 보여준다.



다윗은 내 친구 시리즈(6권)

박순용 | 생명의말씀사 | 192쪽

어린이들에게 들려주는 다윗의 어린 시절 이야기. 다윗은 내 친구 시리즈는 총 6권(① 다윗은 용감한 양치기였어요 ② 다윗은 왕이 될 거예요 ③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④ 다윗과 요나단은 좋은 친구예요 ⑤ 다윗을 사울 왕이 질투했어요 ⑥ 다윗이 예수님을 기다려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페이지 하단에 적힌 영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도 할 수 있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 워필드의 '칼빈 연구서'

모든 일에 실천적이었던 한 이상주의자의 사역

"종교개혁은 기독교가 전해진 이래 인간 정신이 이루어낸 가장 위대한 사상적 혁명이었다."

<칼뱅>은 네덜란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바빙크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라고 불리는 벤자민 B. 워필드(Benjamin B. Warfield, 1851-1921)가 쓴 칼빈 연구서다.

워필드는 종교개혁을 위와 같이 간명하게 정의하면서, 칼빈에 대해 "종교개혁 운동의 적극적 지침을 제대로 진술한 첫 책인 <기독교 강요> 외에도 성경 주석을 저술해 개신교 신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며 "칼빈은 제네바를 개혁하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오늘날도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힘을 심었다"고 평가한다.

저자는 칼빈이 개혁가로서 일궈낸 사역의 특성을 "모든 일에 있어서 실천적인 사람이 된 한 이상주의자의 사역"이라고 정리한다. 칼빈은 이 외에도 "종교개혁을 구한, 더 제대로 표현하자면 유럽을 구한 도덕적 힘", "역사 전체를 통틀어 도덕적 힘이 그렇게 승리하는 경우를 또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를 여러 사람들에게서 받았다.

1부 '장 칼뱅, 그의 생애와 작품'에는 칼빈이 했던 사역들과 그에 대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실려 있다. 이후 <기독교 강요>를 토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2부)', '하나님



칼뱅 벤자민 B. 워필드 새물결플러스 | 410쪽

(3부)', '삼위일체(4부)' 등을 다루는 칼빈의 교리를 살피고, 칼빈주의 거장답게 5부에서 '칼뱅주의'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워필드는 '칼뱅주의의 근본 원칙'에 대해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이것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 곧 죄에 물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에 나타나는 본성을 깨닫는 것"이라며 유신론, 경건한 교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등을 꼽고 있다.

"칼뱅주의자는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즉 자신의 개인적·사회적·종교적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적·도덕적·영적 삶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삼기로 결정하는 사람이다. 칼뱅주의자는 다른 어떤 것에 이끌리어 그런 진

술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삶을 주관하는 칼뱅주의의 원칙이라는 진술이 가진 엄격한 논리적 힘에 의해 그런 진술을 받아들인다."

마지막으로 워필드는 "미래의 기독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칼뱅주의의 성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칼뱅주의가 해석한 교리 체계만이 세상의 모든 질서가 은혜의 교리와 합리적인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체계"라고 정리한다. 부록에서 '신학자 칼뱅과 오늘날의 칼뱅주의'라는 제목의 강연 3편을 소개한다. 부제 '하나님, 성경, 삼위일체, 교리 해설'.

이대용 기자

감사의 계절

선물권 대매출

한울한울 장인의 혼을 담은 맞춤 양복, 고객의 마음까지 담은 맞춤양복, AS는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Gold Finger Tailor

직접 재단/직접 재봉
맞춤 정장/명품 옷수선

T: (213)386.5858

975 S. Vermont Ave #102, LA, CA 90006



김병호 Master Tailor

쿠폰소지자 한함
20% DC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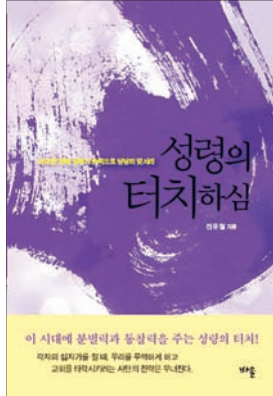
선교사 출신 목회자가 체험한 성령 “능력, 말씀, 믿음..”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성령의 터치하심> 출간

“내 영혼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이 휘몰아치고 폭풍우와 같은 시련이 닥쳐와도 이제는 여유로운 마음으로 성령과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30여 년 사역의 길에서 하나님께 받은 큰 상급이다.”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가 삶 속에서 깨달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 <성령의 터치하심>을 펴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지만, 절망과 분노에 가득차 있던 20대의 진유철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흉내라도 내보자는 심정으로 기도원에 갔다가 그곳에서 성령의 터치를 체험했다.

그리고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파라과이를 향해 가면서 “이제 내가 가면 남미는 복음으로 뒤집어진다”고 장담했지만 그를 기다린 것은 척박한 선교 환경과 가난, 질병 등 시련으로 가득했다. 밥먹을 돈도 없어서 금식을 밥 먹듯한 그에게 금식대장이란 별명이 따라다녔고 신혼집은 교회 화장실 옆에 마련된 작은 공간이 고작이었다. 고된 사역으로 심각한 폐병까지 앓았다. 그러나 그는 “이런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 분도, 지침 없이 사명을 감



성령의 터치하심
도서출판 바울
진유철 | 328쪽

당하게 해 주신 분도,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해 답을 주셨던 멘토도 오직 성령뿐이었다”고 간증한다.

이 책에서 뭔가 산신령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신비한 체험을 기대한다면 당장 첫 장부터 실망할 것이다. 저자는 책에 수록된 23편의 글에서 오히려 냉철하다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들며 현 사회와 성도들의 신앙에 날카로운 분석을 가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낸 후, 그 공감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대안을 제시하는 독특한 화법을 사용한

다. 제목이 <성령의 터치하심>이란 걸 모르고 읽는다면 오히려 ‘이 책이 성령과 무슨 상관이 있나’할 정도로 진 목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다. 진 목사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성령은 화려하게 ‘짤’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과정 가운데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된다. 이 책 1장에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2장에서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3장에서는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 4장에서는 공동체에 역사하시는 성령이 집중 조명된다.

저자는 남미에서 20년 이상 선교하고 미국에서 8년 이상 이민목회를 했기에 절망과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도전하는 데에 탁월한 은사가 있다. 또 책 중간 중간 등장하는, 그가 남미에서 선교하면서 겪은 놀랍고도 감동적인 일화들은 선교지가 얼마나 다이내믹한 상황을 연출하는 곳인지, 그리고 그 보다 더 다이내믹하게 일하시는 성령님을 동시에 증거한다.

진 목사는 “책을 쓰기에는 제가 부족하다 느껴 머뭇거리고 있을 때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큰 도전을 주었다. 사도 요한은 당시의 핍박과 환란으로 모든 글을 묵시와 암호로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이름만은 정확하게 기록했다. 미약하나마 저도 제가 체험한 성령에 대해 증언이 되어야겠다는 결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진 목사는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성령의 터치만이 복음을 복음되게 증거하는 능력임을 확신한다. 성령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성령과 하나되어 영적인 일에 집중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책에 대해 조용기 목사는 “진 목사는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목도케 하는 귀한 종이자 저의 사랑하는 제자”라면서 “독자들에게 이 책이 깊은 은혜와 선한 영향력을 줄 것”이라고 추천했고 박희민 목사는 “삶과 사역의 현장에서 씨름하며 터치된 주옥같은 이 글은 동일하게 믿음의 고민과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독자들에게 큰 감동과 지혜의 샘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영훈 목사, 강준민 목사 등이 이 책을 추천했다.

김준형 기자

박성규 목사 출판 감사예배 “말씀이 불이되어”



박성규 목사 출판감사예배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가 성역 30주년을 맞아 설교집 <말씀이 불이 되어>를 출판하고 지난 8일 출판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성규 목사는 “이 설교집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로 가능했다”고 전하며 성도들께 감사해 했다.

박 목사는 “설교를 사모하는 성도들의 열심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일주일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새벽까지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부흥과 영광을 위해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출판감사예배는 신상희 목사(주님세운교회)의 사회로 시작돼 이운우 장로의 대표기도 후 서정운 목사(장로회신학대학 전 총장)가 설교했으며, 김중훈 목사(해외외인장로회 총회장)가 축사했다.

김영중 권사가 축사를 낭독하고 김창인 목사(한국 광성교회 원로목사)의 동영상 축사와 강순영 목사의 서평과 축사 순으로 이어졌다. 또 나경화 찬양선교사(국제성서화홍보대사)의 특별찬양과 주님세운교회 시무 협동장로들의 특송이 이어졌다.

서정운 목사는 녹17장11-19절을 본문으로 “온전케 하는 복음”이란 설교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복음의 선포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은 열 사람 중 이

방인인 사마리아인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을 얻었다”며 “거룩한 생명이 역동하는 강단,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라”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김중훈 목사는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메시지로 듣게 하는 것이 설교”라며 “박성규 목사의 설교는 성령의 감화로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는 설교”라고 전했다.

동영상으로 축사를 전한 김창인 목사는 “설교는 교리를 중심으로 깨달음을 주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가 있다”며 “박성규 목사의 설교는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 설교를 넘어 생활이 변화되는 부흥회적인 설교의 세 가치를 갖춘 훌륭한 설교”라고 말했다.

강순영 목사는 “박 목사의 설교 집에서 ‘한국은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의 나라요, 미국은 우리를 키워주고 복음을 전해 준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한 게 인상적이다. 박 목사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 미국이 동성결혼과 세속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눈물로 안타까워하며 외치는 행동하는 열정의 목회자”라고 말했다. 이어 정시우 목사(미 방위군 군종감)의 축도로 모든 예배를 은혜롭게 마쳤다.

한편, 이 설교집의 모든 수익금이 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한 기금으로 쓰여지게 되고 기독교서점점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이인규 기자



나성순복음교회 진유철 목사

최첨단 3D 전신 스캔 검사

다나병원의 3D 전신 스캔 종합검사는 신체내 투입이나 통증없이 신속정확하며 과학적인 방법으로 뇌, 심장, 혈관, 간, 위, 척추 등 전신의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위험 요소들을 미리 측정하여 예방도 가능하게 하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전신기능의 검사를 합니다.

유전자 생약치료

200여개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질병위험과 전반적인 건강상태 상담. BAM(bio active molecule; 생리활성물질)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나병원

다나병원은 Well-Being과 Aging Care를 목표로 통합의학을 지향합니다. 621 S. Virgil Ave., #250, Los Angeles, CA 90005 / T.213.487.0691

앞서가는

젊은 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헤어칼라 전문점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up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미스타일 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SEBASTIAN.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Tel: 213-739-1022

• 영업시간 :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8:00 P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Fax. 213) 402-5136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완성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주님미디어에서 귀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참가하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였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장외),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junimedia.com

전도축제 준비를 위한 전도용품, 새가족 선물용시디앨범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1. 전도용품 세팅 **맞춤형으로 제작해 드립니다.**
2. 전도용 실교서 **소량도 제작가능합니다.**
3. 새가족 및 방문자 선물용 찬양, 실교서디앨범
4. 각종 배너 **모든 사이즈 제작 가능합니다!**
5. 완성배너 (스탠드 포함 \$65) **Free Shipping!!!**

전도용품 1,000set(\$180)
고급할인 할리슈팅! 1set에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전도엽서

각종행사용품 및 전도용품, 선물용품을 구매하여 보았으나 불만사항을 말씀하시거나 더욱 다양한 상품과 할인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10% 할인

- 트랜스미션
- 타이밍벨트
- 브레이크
- 툰업정비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Special Price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노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써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여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몸살, 폐렴, 신종플루, 독감예방,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격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2015년 초음파 리프팅 V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도입기념 세일

- *초음파 리프팅 V라인 4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 *부분지방 분해 S라인 8회 \$999, 2주 초소피드 다이어트 Free

치아미백 3달분 \$60

배 빠는 속편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담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win HYUNDAI CARSO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5 현대 소나타/엘란트라 리스스페셜

0% APR, No Payments for 90 Days!

Sonata 98\$/Month(3 Yrs.) Elantra 88\$/Month(3 Yrs.)

2015 Hyundai Sonata & 2015 Hyundai Elantra

www.winhyundaicarson.com
한인타운에서 15분에서 20분거리 **브로커 환영**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Some 450 attended the first night of the first Christ Central Network Conference from November 6-8.

A Network to Resource and Support Asian American Pastors Begins

BY RACHAEL LEE

Christ Central Network hosted its first conference from November 6 to 8 at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marking the beginnings of a network to support and resource Asian American pastors and ministries.

This first conference, themed, "Ordinary Evangelism and Its Extraordinary Effects," had three goals, organizers said: to train and equip leaders and churches for more effective evangelism; to celebrate and encourage gospel collaboration; and to cast a vision and discuss details about what the network will look like together with pastors who are interested in joining the network.

Hence, the first night and the Sunday services on the third day were open to any lay members and leaders who wanted to worship and learn more on how to effectively share the gospel, while the second day was focused more on training leaders on how to cultivate a culture of active evangelism within their ministries. The second day also featured an intimate gathering of some 40 pastors who brainstormed together on what this network would practically look like.

The network was birthed by the collaboration of three key leaders: Rev. Harold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Rev. Owen Lee,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Virginia; and Rev. Ben Kim, the senior pastor of Christ

Central Presbyterian Church, San Francisco. These leaders launched the network in hopes to provide resources and relational support for younger Asian American pastors.

"I remember when we were in our early 30s," said Rev. Harold Kim. "We often felt lonely, and we wished that there would be someone who can mentor and guide us."

Indeed, when asked, "If there was one thing that you could take away from this network, what would that be?" during the vision casting meeting, many of the pastors said they would like "direct access to an older pastor," rather than a loose coalition or gathering that only provides general conferences.

"I would want to be able to contact an older pastor to ask them about some of the specific problems that I'm facing," said one pastor during the meeting. Some pastors mentioned that they would like guidance on the process of an English ministry evolving into an independent church.

CCN is still in its formation stages, however, and specifics in terms of membership, affiliation, and format have not yet been set in stone. Some things are certain, however, including the fact that the network does not aim to be a denomination -- only a relational and financial support network. Holding a conference on a regular basis is another aspect the key leaders have guaranteed, and for the upcoming year, the key leaders are planning to help two to three

churches particularize to become a church -- whether it's an English ministry trying to become independent, or a church plant.

"We were only expecting our three Christ Central churches and then one or two more churches to show up," said Rev. Harold Kim, "but we saw a much larger turnout than we expected. We were very pleasantly surprised and blessed. Now, there's a lot to do, but what the key leaders will be discussing over the next month are, what are the few things that we can do right now? There is such a wide range of needs, but what are the few that we can hone in on?"

"The turnout during the conference tells us a lot about the fact that there definitely is an itch and a need for something like this [network]," said Ted Vaughn, a consultant who is working alongside the key leaders to form the network. Some 450 attended the first night of the conference, while some 100 pastors and leaders attended the second day. Over a dozen local churches were represented.

Meanwhile, Rev. Harold Kim spoke during the first night and shared six aspects to keep in mind for evangelism. Rev. Owen Lee led a three-hour session during the second day, during which leaders were able to brainstorm together on specific ways that their churches could become more proactive in reaching out and cultivating an evangelistic culture. Rev. Ben Kim spoke on Sunday on the promises that God gives to His people when they share the gospel.

Key Ingredients for a Healthy Church

Interviews with Asian American Pastors, XXIII: Rev. Justin Kim

BY RACHAEL LEE

Reverend Justin Kim has experienced ministering in the Korean immigrant church context in all four corners of the country -- in Virginia, Florida, Washington, and now, in California.

Kim, who in August became the lead pastor of Bethel English Church, the English ministry at Bethel Korean Church in Irvine, CA, said his time in several different churches in four states through over 15 years of his time in ministry have given him a range of painful, as well as hopeful, experiences. Painful experiences of disappointments and letting go of personal idols; hopeful experiences of sincere reconciliation and meaningful cooperation.

Based on his experiences, Kim said, there are a few "key ingredients," as he put it, that help to foster a healthy dynamic between the Korean ministry (KM) and the English ministry (EM) in a Korean immigrant church.

"It's like cooking a good meal -- you need to get the ingredients right for it to taste good," Kim said.

One of the key ingredients is "for the lead pastors of both the KM and EM to have the same vision, and to have a good, trusting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Kim said. He added that he himself has had both negative and positive

experiences in this regard -- not sharing the same vision with the senior pastor of one church, and finding in the senior pastor of yet another church a mentor with the same heart.

"Churches that have pastors with the same heart, I've seen are healthy, and both KM and EM were growing," Kim said. "Whether the two pastors are just spending time together through meetings or eating, I think they have to have some time together outside of just a ministry context."

Another key ingredient is for leaders of both ministries as a whole to spend time together as well, whether it's through serving together or having more casual fellowship together.

"They say friends who pray together, stick together," Kim said. "It really helps when the two ministries seek opportunities to do ministry together, like doing outreach to the homeless, or going on missions together, which is what I see a lot of churches doing. It's challenging because you've got cultural and language issues, but when you can overcome those things to serve, pray, laugh, and have fun together, that naturally bonds everyone together."

Kim shared that he felt this even recently at a staff retreat he attended with Bethel pastoral staff.

"Staff from both the KM and EM were there together, and the high-

light for me was playing *chok-gu* with them," Kim recalled. "It was competitive, but goofy and fun, and I just saw a different side to these men. It wasn't just suit and tie -- they're fathers and husbands, and they like having fun."

A striving for mutual understanding from both ends is another important ingredient, Kim said. The KM -- the older generation -- must learn to let go, trust, and empower the EM -- the younger generation -- and allow them to make mistakes, he explained. But on the other hand, the EM must also take ownership and responsibility for the church and ministry as well, and continually cultivate a teachable heart toward the older generation.

"Among many things, there are three important aspects we can learn from the KM," Kim said, "and that's their passionate prayer life, their passion for missions, and their sacrificial service. We're comfortable because we didn't grow up in wartime like many of them did, so we aren't as sacrificial or giving as many of the older generation are."

For example, he said, "our strongest support and my favorite person in the church is this elderly *kwonsanim*. She comes up to me, she hugs me, and she says to me in her broken English, I love you, we love the English ministry. And she backs it up with her actions. She came and served us for our

How Can Christians Exemplify Leadership at Home, Church, Work?

BY RACHAEL LEE

Biola University's Talbot School of Theology hosted the second annual Asian American Ministries Conference (AAMC) last week from November 6 to 7, this year focusing on the theme, "Lessons on Leadership."

"There is such a void in the area of leadership all throughout society," said Dr. Benjamin Shin, the director of the AAMC Committee. "For this reason, we wanted to equip the saints to be effective in leading the home, the marketplace, and the church like Christ and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s such, the conference was divided into three "mini-conferences," as Shin called it. With the exception of the opening and closing plenary sessions, all of the plenary and breakout sessions were separated into three tracks: leadership in the home, leadership in the church, and leadership in the marketplace. Steven Chin, the senior pastor of Boston Chinese Evangelical Church and a council member of The Gospel Coalition, led the track for leadership in the home; Alexander Strauch, most known as the author of *Biblical Eldership*, led the track for leadership in the church; and Brian Chan, CEO of Liferay Portal, led the track for leadership in the marketplace.

"Our hope is that as you strive to be godly leaders in the home, that you would also bring that into your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And as you lead in the church, that you would take that and become leaders in the marketplace as witnesses for Christ," said Shin.

The three different tracks explored more nuanced details of what leadership entails in those specific contexts. Steven Chin discussed what leadership could look like in marriage and in parenting, and breakout sessions discussed the father's and mother's leadership in the home. Brian Chan discussed how Christians in the workforce could point people to Christ through taking risks and even in the everyday mundane routine, and a breakout session discussed specifically what a Christian witness could look like in the education system. Alexander Strauch discussed the role of elders and deacons during a pre-conference

on Friday, and on Saturday, delved into how the Old Testament and New Testament show that Christian leaders must be radically different from the leaders of this world. A breakout session in the church track discussed the hiring process in the church -- how the search committee should conduct the process, and what candidates should look out for.

Though the tracks discussed very different details depending on the context, there were several qualities of leadership that speakers particularly emphasized across the board.

For example, several speakers noted that a leader must prioritize his or her personal spiritual growth. Steven Chin said that he considers "not praying enough" as one of his most significant failures in leadership, and emphasized the need for leaders to invest time in genuine prayer, not just "lip service prayers," as he put it.

"If leading is taking [people] somewhere," said Brian Chan on a similar note, "then as you draw closer to God, that will naturally allow you to lead them closer to Him as well."

Leaders must also show humility and serve those who they are leading, speakers emphasized.

"A lot of people are attracted to leadership because they have self-esteem issues," Chin said. "But leadership is not about you -- it's about God. You're just a piece of what God is doing ... Our whole job [as leaders] is to point people to Christ and get ourselves out of the way."

"When Jesus comes back, he himself will serve us," Chan said, saying that when being witnesses and leaders in the marketplace, Christians must exemplify that servanthood and humility to others as well.

Finally, speakers emphasized, leaders must love. Alexander Strauch, who wrote the book, *Leading with Love*, particularly emphasized this aspect and dedicated an entire plenary session on love.

"The Corinthian church was proud of their spiritual gifts and their accomplishments," Strauch said, referring to 1 Corinthians 12:31-13:3. "But Paul was telling them, there is something even more excellent than that, and that's love."



Rev. Justin Kim is the lead pastor of Bethel English Church, the English ministry of Bethel Korean Church in Irvine, CA.

newcomers' lunch, and she spoils my kids by buying them candy and drinks. She always wants to buy my family lunch and serve us."

"These are qualities that inspire me, and I'm motivated to learn from [the KM] and grow in these ways as well," he explained.

But among all of these ingredients, perhaps the most challenging one to carry out is one of taking steps toward personal healing from hurts that result from interacting with others, Kim said. There are several steps that Kim said he took to heal, including having the bigger picture of the church in mind -- that the church is "not perfect, but it's the bride of Christ," he said.

Another step he's taken is praying to repent of his own sins, and praying prayers of forgiveness and blessing over those who have hurt

him. And the most significant step that led to healing, Kim said, was actually taking initiative to reconcile with the people. He already took initiative to reconcile with several people by either writing to them, or meeting directly with them.

"I would begin by humbling myself and asking for forgiveness," Kim said. "owning up to my own mistakes, things that I've done wrong -- because the hurt goes both ways."

"Thankfully, every person whom I've approached has also responded humbly with an apology, and fellowship was restored -- to the point that I'm now even more humbled by them," Kim added. "I think [reconciliation] is God's way of eradicating pride and arrogance, and these encounters really give me hope for the church."

100% 천연성분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당뇨! 원인 기능 개선제

PRO-Z GOLD



Special Price

✓ 미국 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송해선생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병의 원인?

혈액 속의 포도당 수치, 즉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가 지속할 때를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 후 혈액으로 들어온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췌장 베타세포에서 나오는 인슐린이란 호르몬이 필수입니다. 만약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분비된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당뇨병의 치료방법은 있는가?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으나 완치는 불가능하며 단지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것이 일반이론입니다. 현재 당뇨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당뇨약들은 천연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 장기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심장부종, 신장부종, 간독성)과 방광암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유수의 대학의 연구팀들의 연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송문기 박사팀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당뇨병 회복의 새로운 메카니즘 '프로지'

'프로지'는 혈당강화제와는 달리 당뇨의 근본원인(인슐린 저항성 및 췌장 베타세포 파괴에 의한 인슐린 분비기능저하)을 해결하는 메카니즘입니다. 당뇨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생긴 결과입니다.

아연은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필수미네랄입니다. 포도당을 세포까지 운반하는 역할을 인슐린이 하는데, 당뇨 환자들은 혈액 속에 여러 가지 요인(비만, 과음, 운동부족, 스트레스)에 의해 인슐린 반응도가 낮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라는 소화효소가 필수적인데 이 소화효소의 주성분이 아연이며, 아연은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 프로지는 우리 몸속에서 근육과 지방세포로 아연을 운반하여 아연의 신진대사 활성화를 통한 인슐린수용체의 활성화 및 인슐린 수용체의 생성을 촉진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아연이 당대사와 밀접하다면, 왜 아연으로 만든 당뇨약은 없나요?

아연은 특성상 섭취 시 인체 내에 머무르는 시간이 짧고 흡수율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음식에도 굴이나 소고기 등에 아연이 존재하지만, 섭취 후 3~4시간이면 소변으로 배출되고 몸에 흡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연이 췌장 세포 기능 복원이나, 근육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해당 세포내 아연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여야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는 지금까지 아연 흡수율 제고 물질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송문기 박사의 신합성물질 '프로지'는 동물의 전립선에서 추출한 물질(CHP)을 아연을 킬레이트시킴으로써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당의 대사를 도와 몸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송문기 박사와 연구팀은 한국인 최초로 미 정부 지원으로 이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고 당뇨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송문기 박사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미, 재향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세계 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에 등재
40년간 당뇨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프로지를 개발한 송문기 박사는 인류 복지 건강에 위해가 되는 당뇨, 비만, 알츠하이머(치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도록 40여 년간을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그는 하와이대학, UCLA 대학교수 미 재향군인병원(US VA Hospital)에서 근무했으며, 가장 시급한 당뇨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미국 연방식품의약품(FDA)로부터 신약 임상시험을 진행중입니다. 그 전에 FDA의 독성 TEST, 국제규격에 부합되는 임상 TEST를 거쳐 FDA로부터 신약판매 전에 건강기능식품(PRO-Z)으로 허가를 받아 당뇨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당뇨원인 기능개선제' 프로지를 출시했습니다.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통해 세계 3대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된 인물입니다. 현재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 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판매점

세크라멘토	916.363.2378	Smile Home Shopping
하와이	808.947.8086	Herb Land
달라스	972.620.2900	Royal Health Department
시애틀	206.229.5466	Health Village



PRO-Z

한국 50만명 판매 SALE 1병 \$69 + tax 3병 \$179 + tax 6병 \$342 + tax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213.434.1170

www.prozusa.com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